



개원 29주년 기념 심포지엄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기반,
**'지역 인재'의
성장과 정착**

2026년 10월 2일(금)
엘타워 엘하우스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기반, '지역 인재'의 성장과 정착

2026년 10월 2일(금) 14:00

엘타워 엘하우스(8층)

14:00~14:40	개 회 국민의례 개 회 사 고혜원 원장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환 영 사 이한주 이사장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축 사 유동수 위원장 (국회 정무위원회) 최교진 장관 (교육부) 김영훈 장관 (고용노동부) 차정인 위원장 (국가교육위원회) 김지형 위원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강남훈 부위원장 (기본사회위원회) 이병현 위원장 직무대행 (지방시대위원회)
14:40~15:40	제1부 발표 ❶ 신기술 분야 구인배율과 미스매치로 본 지역 인력수급 구조 홍광표 센터장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미래인재연구본부 인력수급분석센터) ❷ 지역인재정책과 대학의 역할: 정책 동향과 과제 주희정 선임연구위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평생직업·진로교육연구본부 국가진로교육연구센터) ❸ 청년층의 이동과 고용에 대응하는 지역인재정책의 재정립 백원영 센터장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고용능력연구본부 지역·산업HRD연구센터) ❹ 수도권·비수도권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와 정책과제 김상호 본부장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교육고용연계연구본부)
15:40~16:00	휴식 및 장내 정리
16:00~17:00	제2부 토론 좌 장 황성수 부원장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토 론 이진우 과장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이상임 과장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과) 서선영 연구위원 (창원시정연구원) 김송년 실장 (산업연구원 지역산업입지연구실) 김건위 센터장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의정연구센터) 석진홍 센터장 (충남경제진흥원 경제교육센터) 질의응답
17:00	폐회

※ 위 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I문의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홍보팀 044-415-5031 / gpr@krivet.re.kr

목 차

-
- 1** 신기술 분야 구인배율과 미스매치로 본 지역 인력수급 구조 1
홍광표 센터장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미래인재연구본부 인력수급분석센터)
-
- 2** 지역인재 정착과 대학의 역할: 정책 동향과 과제 19
주희정 선임연구위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평생직업·진로교육연구본부 국가진로교육연구센터)
-
- 3** 청년층의 이동과 고용에 대응하는 지역인재정책의 재정립 37
백원영 센터장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고용능력연구본부 지역·산업HRD연구센터)
-
- 4** 수도권·비수도권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와 정책과제 55
김상호 본부장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교육고용연계연구본부)
-

발 표 1

신기술 분야 구인배율과 미스매치로 본 지역 인력수급 구조

홍광표 센터장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미래인재연구본부 인력수급분석센터)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개원 기념 세미나
(2026. 10. 2.)

신기술 분야 구인배율과 미스매치로 본 지역 인력수급 구조

구인공고로 본 신기술 수요의 지역 분포와 5급3특 권역 인재정책의 시사점

홍광표(인력수급분석센터장)

KRI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 본 발표내용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서 현재 수행중인 범부처 신기술 인력수급 분석 지원(2026) 1. 신기술 분야별 수급전망(홍광표 외, 2026)연구의 중간 결과물로, 무단 전재, 인용 및 배포를 금합니다.

발표 구성

02

신기술 수요의 지도에서 권역 인재정책의 근거 탐색

지역 인재정책의 출발점 = '어디에 어떤 신기술 일자리가 있고, 그 일을 할 사람은 충분인가'에 대한 근거

01

서론

왜 지역, 왜 신기술인가

인구 감소·수도권 집중, 권역
전환, 성장엔진으로서의 신기술

02

본론 1

신기술 수요는 어디에
있나

구인공고 29.9만 건으로 본
분야별 집중과 지역 특화

03

본론 2

특화 분야의 수급은
어떤가

선행연구의
구인배율·미스매치를 지역 특화
분야에 맞춰 재해석

04

본론 3

권역으로 보면 무엇이
달라지나

5급3특 8개 권역의
특화·미스매치와 정책 방향
대조

05

결론

정책은 무엇으로 방향을
잡나

분야 유형별 처방, 설계 절차,
부처 간 데이터 연계

관통하는 질문 — 신기술 인재 수요의 자리와 사람의 자리는 일치하는가, 불일치라면 어느 공간 단위에서 풀어야 하는가

01

PART

왜 지역, 왜 신기술인가

인구 감소 · 수도권 집중 · 권역 전환 · 성장엔진으로서의 신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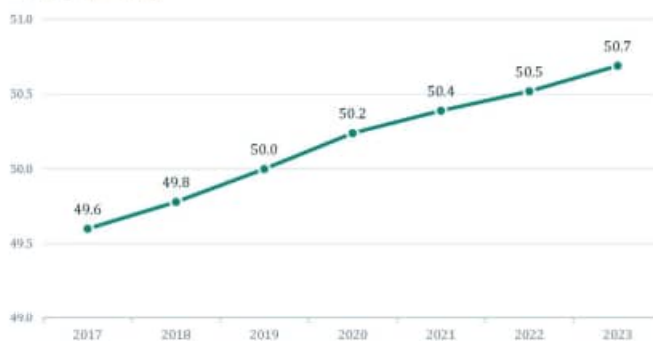
서론 · 경제사회적 배경

04

인구는 줄고, 수도권 집중은 계속되고 있다

총인구 감소 속 수도권 집중 심화 — 인구 감소가 비수도권에 집중되는 구조

수도권 인구 비중(%)



주민등록인구 연말 기준 · 수도권 = 서울·인천·경기 · 2019년 50% 돌파

50.7%

수도권 인구 비중(2023)
2017년 49.6% 대비 1.1%p
상승

- 절반 돌파 이후에도 매년 0.1~0.2%p 상승
- 인구 감소가 수도권 밖에서 먼저 진행

+33.4만

수도권 인구 증감
(2017~2023)

-78.8만

비수도권 인구 증감
(2017~2023)

67만 명

청년 수도권 순이동
(2015~2024)

의미 — 인구 감소 지역에서 신기술 산업을 키우려면 필요 인재의 공급원부터 점검 필요

자료: 주민등록인구(시도별 연말 인구), 청년 순이동은 지방시청위원회, 「5·3국·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2025. 9. 30) p. 20 제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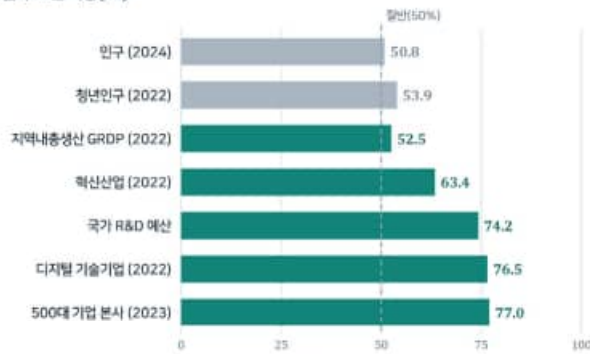
서론 · 경제사회적 배경

05

기업·혁신·일자리 자원은 인구보다 더 수도권에 몰려 있다

경제·혁신 자원의 수도권 집중(74~77%)이 인구 집중(50.8%)을 크게 앞섬

지표별 수도권 비중(%)



화색 = 인구, 청색 = 경제·혁신 자원 · 기준 연도는 지표별 상이(괄호)

해석

- 격차 수도권 비중: 인구 50.8% vs 기업 본사·국가 R&D·디지털 기업 74~77%(20%p 이상 차이)
- 구조 고부가가치 기능·혁신 자원이 먼저 집중되고, 인구가 그 일자리를 따라 이동하는 구조

함께 보는 지역 격차

- 재정자립도 56.2%(2005) → 48.6%(2025)로 하락
- 아파트 중위가격 수도권이 비수도권의 2.6배(2025)
- 가구 평균자산 수도권 6.7억 원 · 비수도권 4.2억 원(2024)

신기술 일자리 수요도 같은 구조인가가 본론 1의 첫 질문

의미 — 지역 격차의 출발점은 사람이 아닌 일자리 → 신기술 일자리 수요의 입지부터 확인

자료 지방시대위원회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2025.9.30) p. 10, p. 20 재인용, 혁신산업·디지털 기술기업·국가 R&D 수치의 원 출처와 기준 연도는 문서 표기를 따름.

서론 · 정책 환경

06

균형발전의 공간 단위가 시도에서 권역으로 바뀌고 있다 — 5극3특

성장엔진·인재양성·산학연 거점을 권역 단위로 묶어 설계하는 방향으로 전환(2025.9)

5극 · 초광역 경제권

- 수도권 서울·인천·경기
- 충청권 대전·세종·충북·충남
- 대경권 대구·경북
- 동남권 부산·울산·경남
- 광주·전남 광주·전남

3특 · 특별자치도

강원 · 전북 · 제주

시도 경계를 넘는 권역 단위 규모의 경제 구성

경제권의 삼각 축



확인해야 할 질문

- 1 권역별 신기술 인재 수요의 분포
→ 본론 1
- 2 특화 분야의 인력 수급 상태
→ 본론 2
- 3 권역 단위로 묶을 때의 변화
→ 본론 3

요지 — 시도별 개별 육성에서 인접 시도를 묶은 8개 권역의 공동 설계·투자로 전환

자료 지방시대위원회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2025.9.30) pp. 2, 5-7, 22-24.

서론 · 왜 신기술인가

07

왜 신기술인가 — 권역 성장엔진이자 수급 진단이 가장 어려운 분야

균형성장의 성패 = 성장엔진인 신기술 분야의 인재 확보 → 구인·구직을 함께 보는 진단 필요

01 정책의 대상

성장엔진은 곧 신기술

- 성장엔진 예시 광주·전남 AI 재생에너지, 충청권 바이오·클러스터, 부울경 제조혁신 AIDC
- AI 혁신거점 대구 로봇·바이오 AX, 광주 모빌리티·에너지 AX, 경남 정밀제조 퍼지컬 AI
- 인재양성 첨단 기술인재 지역 특화 실무인재의 투트랙

신기술 수급 진단서 pp.23, 25, 30

02 노동시장의 현실

인력 부족과 일자리 부족의 공존

- 기업 AI·클라우드·IoT 등 신기술 분야의 '사람이 없다'는 호소 반복
- 구직자 장기 실업·미취업 청년층의 누적
- 의미 충량 부족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구조적 미스매치 가능성

정착문 제(2025) p.3

03 진단 방식의 한계

'몇 만 명 부족'의 한계

- 노동계수 방식 매출·투자 × 고용계수로 부족 규모 추정
- 설명 공백 왜 채워지지 않는지, 어디서 구조적 비효율이 생기는지 미설명
- 대안 구인(V)과 구직자(U)를 함께 보는 구인배율·미스매치 지표

정착문 제(2025) pp.3-4

04 공간적 편중

신기술 일자리의 수도권 집중

- 디지털 기술기업 76.5%가 수도권(2022)
- 신기술 구인공고 72.3%가 수도권·인구 비중 50.7%(본론 1)
- 분야 > 지역 미스매치 수준은 지역보다 신기술 분야에 따라 더 크게 달라짐

추진전략 p.30 · 정착문 제(2025) p.101

요지 — 지역을 보는 이유가 '집중'이라면, 신기술을 보는 이유는 그 집중을 되돌릴 성장엔진인 신기술이기 때문 → 분야 × 지역 단위의 수급 진단 필요

자료: 지방시대위원회, '5국3축 국가균형발전 추진전략(2025.9.30) pp.20, 23, 25, 30; 정착문 제(2025), '범부처 신기술 인력수급 분석 지원 5. 신기술 발전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자료 2025-22, pp.3-4, 101, 신기술 구인공고 비중은 본 분석(2018.01~2026.02).

02

PART

신기술 수요는 어디에 있나

구인공고 원문 29,9만 건(2018.01~2026.02)으로 본 분야별 집중과 지역 특화

본론 1 · 자료와 측정

09

자료: 신기술 분야로 분류된 구인광고 29.9만 건

신기술 광고의 분야·지역 구성을 특화계수(LQ)로 비교 — 두 HTML 보고서와 동일 기준

299,028

광고 수 · 지역 확인 294,239건

387,603

(분야, 광고) 쌍 · 복수 분야 광고는 분야마다 1건

22개

신기술 분야 · AI·클라우드·로봇·이차전지·신재생 등

98개월

관측 기간 · 2018.01-2026.02

지표 해석 · 특화계수(LQ)

LQ = 지역 안 해당 분야 비중 ÷ 전국 해당 분야 비중

전국 2.6%

전남 16.0%

신기술 광고 가운데 신재생에너지 비중

 $16.0 \div 2.6 \approx 6.2$

- 의미 전남 신기술 구인 수요의 신재생에너지 편중
- 구성 지표 규모가 아닌 구성 비교 · 1 = 전국과 동일, 1 초과 = 편중

분석 범위의 한계

- 신기술 광고 집합 내부 구조 전체 노동수요가 아닌 신기술 분류 광고 안의 상대 분포
- 출처 구성 사람인형 약 79% → 서울·IT 비중 과대 가능성
- 기간 구성 2024년 이후 광고 약 44% · 2024년 청년소재 키워드 신설 등 태깅 변화 포함
- 분야 편중 업체 사전 키워드 매칭 · 일반어 오태깅 사례 존재

단위 = 광고 건수(모집인원은 73%가 0 또는 결측이어서 미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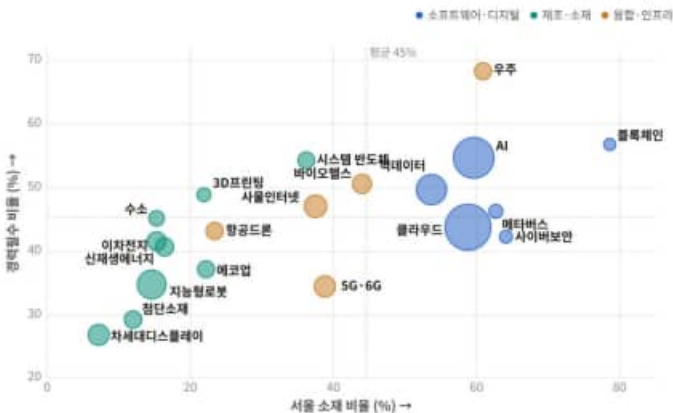
자료 KRIVET 구인광고 원문 DB(워크넷·사람인 통합, 신기술 분야 태깅 광고), 2018.01-2026.02. 분야는 업체 태그 그대로, (분야, 광고) 단위 중복 제거, 지역은 광고 대표 근무지.

본론 1 · 분야별 집중도

10

세 갈래의 신기술 노동시장 — 디지털은 서울로, 제조는 지방으로

디지털은 서울·경력자 중심, 제조·소재는 지방·신입 중심의 서로 다른 노동시장



가로 = 서울 소재 비율 · 세로 = 경력 필수 비율 · 원 = 광고 수 · 점선 = 평균(서울 45%·경력 45%)

자료 KRIVET 구인광고 원문 DB(워크넷·사람인 통합, 신기술 분야 태깅 광고), 2018.01-2026.02. 분야는 업체 태그 그대로, (분야, 광고) 단위 중복 제거, 지역은 광고 대표 근무지, 평균·경력·지역은 광고 게재일, 일자 나누는 표본 부족으로 제외.

해석

- 디지털 집중체인 79% · 사이버보안 64% · AI 60% 서울 소재, 경력 요구 높음 → 경력자 중심 도시형 시장
- 제조·소재 디스플레이 7% · 첨단소재 12% · 이차전지 15%만 서울 소재 → 생산 거점 따라 지방 분산, 신입 비중 높음
- 융합·인프라 바이오헬스 · 사물인터넷 · 5G · 항공드론은 두 시장의 중간

시사점

- 분야별 설계 '신기술' 일괄 정책이 아닌 분야 성격별 인재정책 필요
- 제조·소재 지역 대략·직업훈련 연계 실효 방안이 작동하기 쉬운 구조
- 디지털 인력 공급보다 수도권 밖 수요(일자리) 창출이 선결 과제

본문 1 - 분야별 집중도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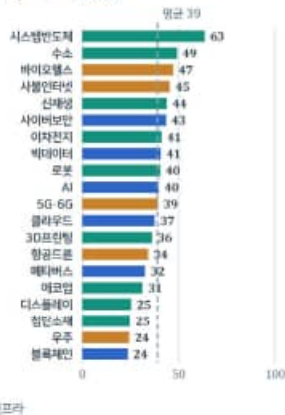
서울 집중도와 학력 문턱은 분야마다 다르다

서울 집중은 디지털, 학력 문턱은 연구개발 직무가 좌우 — 입지와 숙련 수준은 별개의 축

서울 소재 비율(%)



대졸 이상 요구 비율(%)



해석

- 서울 집중 블록체인 79% · 사이버보안 64% · 메타버스 63% · AI 60% / 제조·소재는 반도체(36%) 외 22% 이하
- 학력 문턱 시스템반도체 63% 1위 — 서울 36%이나 수도권 79%(경기 중심 연구개발 수요)
- 경력 문턱 우주 68% · 블록체인 57% · AI 55% vs 디스플레이 27% · 첨단소재 29%

시사점

- 목표 수준 차등 지역 인재양성의 목표 학력·경력·분야별로 달리 설정
- 고속연구개발 반도체 등: 대학원·연구기관 연계 고급 인력 경로
- 현장 신입 디스플레이·소재 등: 전문대·폴리텍·직업계고 연계 현장 인력 경로

자료: KRISET 구인공고 원문 DB(워크넷·사람인 통합, 신기술 분야 특정 공고), 2018.01~2026.02. 분야는 업종 태그 그대로, (분야, 공고) 단위 중복 제거, 지역은 공고 대표 근무지, 대졸 이상 = 전문대졸·대졸·석사·박사, 평균은 20개 분야 전체 공고 기준.

본문 1 - 지역 특화

12

지역마다 특화된 신기술이 다르다 — 특화 지도

비수도권 특화는 제조·에너지에 집중 — 지역 산업 기반이 신기술 구인 수요의 구성을 결정



해석

- 신재생 전남 6.2 · 전북 4.4 · 제주 4.0 · 강원 3.3 · 광주 3.1
- 제조 경남 3D프린팅 4.8 · 충남 디스플레이 4.7 · 충북 첨단소재 4.1
- 서울 블록체인 1.8 등 디지털에서만 1 초과

시사점

- 지역 정체성 기존 산업 기반의 연장선 → 성장엔진 선정의 출발점
- 의존 위험 전남은 신기술 구인의 16%가 신재생 한 분야에 편중

자료: KRISET 구인공고 원문 DB(워크넷·사람인 통합, 신기술 분야 특정 공고), 2018.01~2026.02. 분야는 업종 태그 그대로, (분야, 공고) 단위 중복 제거, 지역은 공고 대표 근무지, 행 = 시도의 신기술 공고 구성, LQ 본문의 22개 분야 전체, LQ는 상대지표로 공고 수 자체는 경기 신재생(2,382건)이 전남(641건)보다 많음.

본론 1 · 지역 특화

13

17개 시도의 신기술 정체성과 일자리 성격

비수도권 신기술 공고는 경력 요구가 낮음 — 신규 인력 채용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구조

시도	공고 수	특화 분야 상위 3 (LQ > 1.2, 25건 이상)	경력 필수	대졸 이상	정규직
서울	127,645	블록체인 1.8 우주 1.5 사이버보안 1.4	52%	43%	88%
인천	10,173	디스플레이 2.5 항공드론 2.4 로봇 2.4	37%	34%	87%
경기	74,975	디스플레이 2.0 시스템반도체 1.6 첨단소재 1.6	39%	40%	90%
강원	2,797	신재생 3.3 항공드론 1.8 바이오헬스 1.6	30%	31%	74%
대전	9,269	신재생 1.7 5G-6G 1.4 우주 1.4	30%	51%	83%
세종	1,068	첨단소재 3.6 바이오헬스 1.9 예코법 1.9	32%	47%	83%
충북	7,468	첨단소재 4.1 이차전지 3.3 디스플레이 3.2	25%	30%	85%
충남	9,143	디스플레이 4.7 로봇 2.9 첨단소재 1.9	27%	29%	86%
광주	4,447	신재생 3.1 3D프린팅 2.0 수소 1.8	31%	33%	81%
전북	4,347	신재생 4.4 이차전지 2.9 예코법 2.5	32%	32%	79%
전남	3,169	신재생 6.2 예코법 4.0 수소 3.7	30%	34%	80%
대구	7,946	로봇 2.2 3D프린팅 1.8 첨단소재 1.4	31%	36%	85%
경북	7,179	디스플레이 2.6 이차전지 2.5 첨단소재 2.5	30%	32%	84%
부산	10,489	신재생 1.6 3D프린팅 1.6 사물인터넷 1.4	31%	39%	82%
울산	2,996	3D프린팅 2.6 이차전지 2.2 수소 2.0	32%	40%	86%
경남	9,598	3D프린팅 4.8 수소 3.4 항공드론 2.6	32%	34%	82%
제주	1,530	신재생 4.0 항공드론 2.1 수소 1.9	33%	32%	82%

참류 = 최고, 주황 = 최저, 전국 평균: 경력 45%, 대졸 이상 39%, 정규직 87%

해석

- 규모 서울 12.8만 · 경기 7.5만 = 지역 배정 공고의 69%
- 경력 비수도권 25-33% vs 서울 52%(약 20%p 낮음) · 최저 충북 25% · 충남 27%
- 학력·고용 대전 대졸 이상 51%(연구기관 집중) · 정규직 경기 90% vs 강원 74%

시사점

- 진입 통로 지역 대학·직업훈련 배출 인력의 신입 진입 여지 큼
- 고용 안정성 정규직 비중 격차(74-90%) 점검 — 지역 인재 정착의 조건

자료: KRIVET 구인공고 원문 DB(워크넷·사람인 통합, 신기술 분야 특정 공고), 2018.01~2026.02. 분야는 업제 태그 그대로, (분야, 공고) 단위 중복 제거, 지역은 공고 대표 근무지. 경력·학력·고용형태는 공고 기재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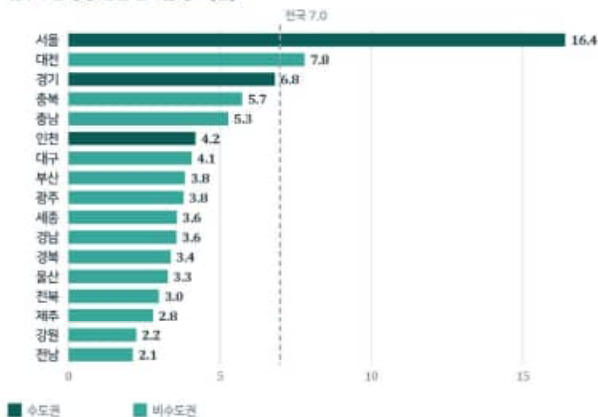
본론 1 · 공고 밀도

14

인구 대비로 보면 서울의 신기술 공고 밀도는 전국 평균의 2.3배다

LQ가 수요의 '구성'이라면 공고 밀도는 '규모' — 특화가 강한 지역이 수요도 큰 것은 아님

인구 1만 명당 연간 신기술 공고(건)



72.3%

신기술 공고 중 수도권 비중
(인구 비중 50.7%)

7.7배

최고(서울 16.4)와
최저(전남 2.1)의 차이

해석

- 격차 인구 1만 명당 연간 공고: 서울 16.4 · 전국 7.0 · 전남 2.1
- 충청권 대전 7.8 · 충북 5.7 · 충남 5.3 — 인구단위·제조 거점으로 수도권 다음
- 특화 ≠ 규모 전남·강원은 신재생 특화 뚜렷, 공고 밀도는 전국의 3분의 1 수준

시사점

- 양성 규모 특화(LQ)와 밀도를 함께 보고 권역 인재양성 규모 설정
- 소규모 특화 지역 절대 수요가 작은 지역은 권역 단위 공동 양성·채용 연계

자료: KRIVET 구인공고 원문 DB(워크넷·사람인 통합, 신기술 분야 특정 공고), 2018.01~2026.02. 분야는 업제 태그 그대로, (분야, 공고) 단위 중복 제거, 지역은 공고 대표 근무지. 인구: 주민등록인구(2018~2023, 2024~2025년은 2023년 값), 사람인별 공고의 서울 관공이 서울 수준을 보임.

03

PART

특화 분야의 인력 수급은 어떤가

선행연구(정지운 외, 2025)의 구인(V)·구직자(U) 지표를 지역 특화 분야에 맞춰 읽기

본문 2 · 선행연구 수급 지표

16

선행연구의 수급 지표로 특화 분야를 다시 본다

구인(V)과 구직자(U)를 함께 보는 세 지표로 특화 분야의 인력 확보 여건을 진단

구인 V

워크넷 상용직 모집인원

매감월 기준 · 22개 분야는 업종(KSIC) 대응

구직자 U

고용보험 상실자 흐름으로 근사

상실월 기준 · 사업장 소재지 · 같은 업종 대응

기간

2018.01~2023.11 (71개월)

17개 시도 × 22개 분야, 합산 후 1회 계산

Θ 구인배율

$$\Theta = V \div U$$

- 정의 구직자 1명당 모집인원
- 편독 1 초과 = 구직자보다 모집 수요가 많아 외부 인력 유입이 필요한 시장
- 유의 분야별 구직 구조 차이로 분야 간 수준 비교에는 미사용

R 상대 구인배율

$$R = \Theta(\text{지역, 분야}) \div \Theta(\text{전국, 분야})$$

- 정의 같은 분야 전국 평균 대비 지역의 상대적 구인 압력
- 편독 R = 1.5 → 인력 확보 여건이 전국보다 1.5배 빠듯
- 정렬 분야 고유의 구직 구조를 통제한 지역 비교

M 지역 미스매치

$$M = \% \Sigma |V \text{ 지역 비중} - U \text{ 지역 비중}| \times 100$$

- 정의 구인과 구직자 지역 분포의 비유사성 지수
- 편독 M = 20 → 어느 한쪽의 20%가 지역을 옮겨야 두 분포 일치
- 의미 지역 간 이동으로만 해소되는 불일치의 크기

유의 - 구직자(U)는 고용보험 상실자로 근사(신규 졸업자·비피보험 구직자 누락, 상실 ≠ 구직) → 수준보다 상대 비교 · 서울은 22개 분야 모두 $R < 1$ (시도 전체 0.26) — 선행연구는 '일자리 부족·경쟁 과열'로 해석 → 모든 R은 그 시도 전체 R과 함께 판독

자료 정지운 외(2025), '정부직 산기술 인력수급 분석 지원 5. 산기술 발전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자료 2025-22, V = 워크넷 상용직 모집인원(마감월), U = 구직자(고용보험 상실자 흐름으로 근사, 상실월), 22개 분야는 KSIC 대응, 2018.01~2023.11 합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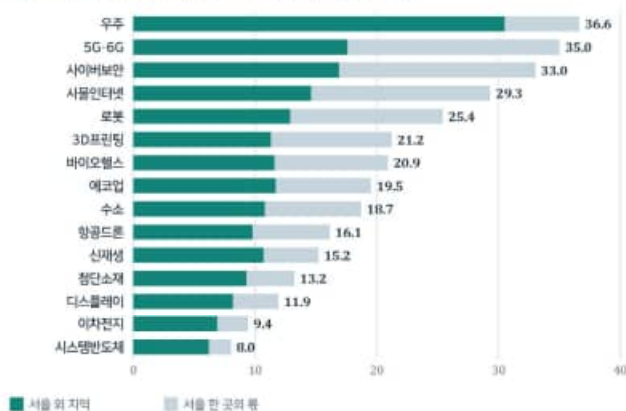
본론 2 - 지역 미스매치

17

배터리·소재·에너지 특화 분야의 지역 미스매치는 낮은 편이다

배터리·소재·에너지는 구인과 구직자의 지역 분포가 비교적 일치 → 불일치는 지역 안의 문제

시도별 상위 특화 15개 분야의 지역 미스매치 지수 M (0-100)



해석

- 배터리·소재·에너지 이차전지 9.4 · 디스플레이 11.9 · 첨단소재 13.2 · 신재생 15.2 → 생산 거점과 인력 풀이 함께 형성
- 제조 확장 로봇 25.4 · 3D프린팅 21.2 · 바이오헬스 20.9
- 디지털·융합 우주 36.6 · 5G·6G 35.0 · 사이버보안 33.0 — 5G·보안은 절반가량이 서울 한 곳의 몫

시사점

- 지역 안 과제 비수도권 특화 분야의 불일치는 지역 간보다 지역 안(속현·처우)에서 발생할 가능성
- 선행연구와 일치 신재생·소재·반도체·이차전지는 공간 미스매치 낮고 지역 내 분야 구성 불일치가 쟁점

제조·에너지 = 지역 맞춤형 교육훈련, 디지털 = 공간·이동성 정책 병행

자료: 정지운 외(2025), "범부처 신기술 인력수급 분석 지원 5. 신기술 발전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자료 2025-22, V = 워크넷 상용직 모집인원(아장월), U = 구직자(고용보험 상실자 포함)으로 근사, 상설월, 22개 분야는 KSDC 대응, 2018.01~2023.11 합산, 서울 할 = (서울의 V 비율 - U 비율) × 2, 선행연구 해석은 같은 보고서 pp.76~77, 101.

본론 2 - 특화 분야의 구인 압력

18

특화 분야의 구인 압력은 대체로 높지만, 지역 전체와 함께 읽어야 한다

특화 분야의 구인 압력은 대체로 높으나 상당 부분은 지역 전체의 인력 부족을 반영



해석

- 분야 고유 제주 신재생 2.53(지역 1.03) · 강원 신재생 1.58(0.79) · 대전 신재생 1.06(0.53)
- 지역 공통 전남·전북 신재생, 경남 3D프린팅, 충남·경북 디스플레이 — 지역 전체와 비슷
- 지역보다 낮음 충북 첨단소재 1.39(1.72), 경기·인천 디스플레이 — 관련 산업군 구직자 흐름 많음

시사점

- 원인 구분 점·약대 차이 큼 = 분야 고유 부족, 차이 작음 = 지역 전반 부족
- 처방 구분 분야 고유 부족 → 분야 맞춤 인력 양성 · 지역 전반 부족 → 산업·주거·교육·생활 인프라 패키지

자료: 정지운 외(2025), "범부처 신기술 인력수급 분석 지원 5. 신기술 발전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자료 2025-22, V = 워크넷 상용직 모집인원(아장월), U = 구직자(고용보험 상실자 포함)으로 근사, 상설월, 22개 분야는 KSDC 대응, 2018.01~2023.11 합산, * 서울 블록제인은 선행연구 분야가 아니어서 2순위(우주) 표시, 지역 왜곡치 제인은 같은 보고서 p.197.

본문 2 - 특화 분야의 구인 압력

19

시도별 특화 분야와 관련 산업군의 구인 압력

특화(LQ)와 구인 압력(R)이 함께 높은 칸 = 인력 병목이 예상되는 지역·분야

지역	시도	시도 전체 R	특화 1	특화 2	특화 3
수도권	서울	0.26	블록체인 LQ 1.8 R -	우주 LQ 1.5 R 0.38	사이버보안 LQ 1.4 R 0.30
	인천	1.39	디스플레이 LQ 2.5 R 1.04	항공드론 LQ 2.4 R 1.31	로봇 LQ 2.4 R 1.40
	경기	1.30	디스플레이 LQ 2.0 R 0.96	시스템반도체 LQ 1.6 R 1.05	첨단소재 LQ 1.6 R 1.21
충청권	대전	0.53	신재생 LQ 1.7 R 1.06	5G-6G LQ 1.4 R 1.02	우주 LQ 1.4 R 0.43
	세종	1.21	첨단소재 LQ 3.6 R 1.27	바이오헬스 LQ 1.9 R 3.01	예코업 LQ 1.9 R 1.25
	충북	1.72	첨단소재 LQ 4.1 R 1.39	이차전지 LQ 3.3 R 1.07	디스플레이 LQ 3.2 R 1.53
대경권	충남	1.39	디스플레이 LQ 4.7 R 1.29	로봇 LQ 2.9 R 1.36	첨단소재 LQ 1.9 R 1.15
	대구	1.01	로봇 LQ 2.2 R 1.10	3D프린팅 LQ 1.8 R 1.66	첨단소재 LQ 1.4 R 0.68
	경북	1.34	디스플레이 LQ 2.6 R 1.31	이차전지 LQ 2.5 R 1.04	첨단소재 LQ 2.5 R 0.89
동남권	부산	1.04	신재생 LQ 1.6 R 0.97	3D프린팅 LQ 1.6 R 1.46	사물인터넷 LQ 1.4 R 1.41
	울산	1.00	3D프린팅 LQ 2.6 R 0.74	이차전지 LQ 2.2 R 0.79	수소 LQ 2.0 R 0.94
	경남	1.34	3D프린팅 LQ 4.8 R 1.33	수소 LQ 3.4 R 1.33	항공드론 LQ 2.6 R 1.14
광주·전남	광주	1.29	신재생 LQ 3.1 R 1.40	3D프린팅 LQ 2.0 R 1.76	수소 LQ 1.8 R 0.84
	전남	1.62	신재생 LQ 6.2 R 1.50	예코업 LQ 4.0 R 1.52	수소 LQ 3.7 R 2.36
강원	강원	0.79	신재생 LQ 3.3 R 1.98	항공드론 LQ 1.8 R 1.49	바이오헬스 LQ 1.6 R 0.82
	전북	1.45	신재생 LQ 4.4 R 1.48	이차전지 LQ 2.9 R 0.99	예코업 LQ 2.5 R 1.30
	제주	1.03	신재생 LQ 4.0 R 2.53	항공드론 LQ 2.1 R 1.07	수소 LQ 1.9 R 1.82
R ≥ 1.2 구인 압력 높음			0.8 ≤ R < 1.2	R < 0.8	현행연구 분야 없음

해석

- 압력 높은 특화 50개 칸 중 27개 R ≥ 1.2 · 비수도권 특화 42개 중 32개 R > 1
- 병목 후보 전남 신재생·예코업·수소, 제주 신재생·수소, 세종 바이오헬스(3.01), 충북 디스플레이
- R < 0.8 서울 우주·사이버보안, 대전 우주, 대구 첨단소재, 울산 3D프린팅·이차전지

시사점

- 우선순위 병목 후보 칸 = 권역 인재양성의 우선 검토 대상
- 검증 필요 공고 LQ는 키워드, R은 업종 대응 → 같은 이름이라도 모집단 상이, 직무 단위 확인 필요

자료: 정지운 외(2025), '정부차 신기술 인력수급 분석 지원 5. 신기술 발전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자료 2025-22, V - 워크넷 상용직 모집인원(여간월), U = 구직자(고용보험 상실자 포함)으로 근사, 상실했음, 22개 분야는 KSDC 대응, 2018.01~2023.11 합산, 공고 LQ: 구인공고 원문 DB 2018.01~2026.02.

04

PART

5극3특 권역으로 다시 보기

8개 권역 합산 특화계수 · 정책 방향 대조 · 미스매치 분해

본론 3 · 정책 문서

21

5극3특 전략이 제시한 권역별 산업 방향

정책 문서의 권역별 성장엔진·AI 확산거점 = 대부분 신기술 분야(확정 목록이 아닌 작성 시점 예시)

수도권 서울·인천·경기 권역 성장엔진 예시 없음 · 수도권 집중 완화가 전략의 배경 공고 분야 대응 —	충청권 p.23 대전·세종·충북·충남 충청권 바이오 클러스터(성장엔진 시범 예시) 공고 분야 대응 바이오헬스	대경권 p.25 대구·경북 대구 로봇·바이오 AX R&D 허브(AI 확산거점) 공고 분야 대응 지능형로봇 · 바이오헬스	동남권 p.23, 25 부산·울산·경남 부울경 제조혁신 AIDC(SK-AWS), 경남 정밀제조 피지컬 AI 공고 분야 대응 AI
광주·전남 p.11, 23, 25 광주·전남 AI 재생에너지(성장엔진), AI-에너지 융합 인재양성, 광주 모빌리티 에너지 AX 공고 분야 대응 AI · 신재생에너지	강원·3특 p.33 강원 관광수도, 바이오·의료 특화산업 성장 기반 공고 분야 대응 바이오헬스	전북·3특 p.25, 33 전북 신재생에너지 확대·새만금 물류거점, 전북 AI 빅데이터 테스트베드 공고 분야 대응 AI · 신재생에너지	제주·3특 p.33 제주 휴양·레저 관광, 헬스케어·첨단과학기술단지 공고 분야 대응 바이오헬스

분석 방법 — 권역별 산업 방향을 공고 자료의 신기술 분야에 대응, 다음 장에서 관측 수요와 비교

자료 지방자치단체별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추진전략'(2025.9.30). 족수는 인쇄본 기준. 문서 작성 시점 기준 성장엔진은 2026.3 선정 예정.

본론 3 · 권역 특화와 정책 방향

22

관측된 권역 특화와 정책 방향은 에너지·로봇에서 겹치고, AI에서 어긋난다

정책 방향과 관측 수요는 신재생·로봇에서 일치, AI는 비수도권 권역 모두 특화 미형성

	AI	빅데이터	바이오 헬스	지능형 로봇	디스플레이	이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수소	3D 프린팅	항공 드론	첨단 소재
수도권 50	1.12	1.06	1.02	0.82	0.89	0.73	0.61	0.77	0.69	0.78	0.76
충청권 50	0.57	0.64	1.43	1.75	2.66	1.94	1.34	1.27	1.17	1.28	2.16
대경권 50	0.69	0.91	0.68	1.95	1.55	1.87	1.50	1.05	1.78	1.46	1.94
동남권 50	0.68	0.89	0.53	1.60	0.34	1.33	1.60	2.09	3.01	1.85	1.46
광주·전남 50	0.76	0.92	0.79	0.56	0.21	1.70	4.44	2.61	1.52	1.78	0.88
강원 30	0.68	1.25	1.58	0.43	0.26	1.31	3.27	1.12	1.25	1.79	1.04
전북 30	0.50	0.84	1.12	0.85	0.58	2.92	4.37	2.40	2.00	2.35	1.56
제주 30	1.15	0.94	0.64	0.32	-	1.75	4.04	1.95	-	2.13	-

□ 정책 문서가 그 권역의 방향으로 언급한 분야 · 6개 권역 합산 공고로 다시 계산한 LO

- 공고 30건 미만: 12건만 늘어도 LO가 10% 넘게 바뀔 만큼 불일치해 미표기(제주 디스플레이 8건·첨단소재 10건·3D프린팅 13건)

자료 KRIVET 구인공고 원문 DB(워크넷·사잡민 통합, 신기술 분야 해당 공고), 2018.01~2026.02. 본치는 업체 태그 그대로, (분야, 공고) 단위 중복 제거. 지역은 공고 대표 근무지. 권역 LO는 권역 합산 공고로 다시 계산. AI 동시태그 = 같은 공고에 AI와 해당 분야 태그가 함께 붙은 비율(천 기전).

해석

- 일치 광주·전남 신재생 4.44 · 전북 4.37 · 대경권 로봇 1.95 · 강원 바이오 1.58 · 충청 바이오 1.43
- 불일치 AI: 동남권 0.68 · 광주·전남 0.76 · 전북 0.50 — 수도권(1.12)에만 특화
- 융합 수요 에너지·배터리 공고의 AI 동시태그 1% 미만(광주·전남 신재생 0.8% · 전북 0.7% · 충청 이차전지 0.9%)
- 포착 한계 제주·대경권 바이오헬스(0.64·0.68)는 공고 분류만으로 판단 곤란

시사점

- 수요 형성 분야 신재생·로봇: 이미 형성된 노동수요에 맞춘 인력 공급 확충
- 수요 선행 분야 AI: 정책이 수요를 앞서는 분야 → 인제 공급과 함께 양커기업 수요 창출 설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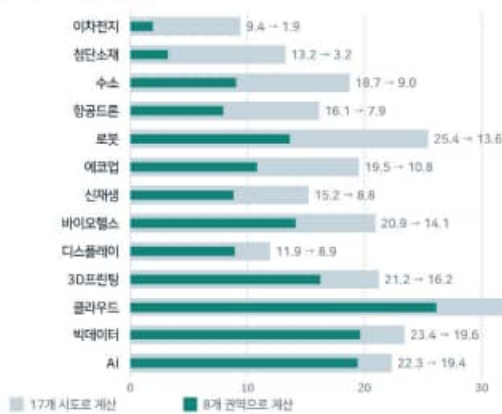
분류 3 - 권역 단위 미스매치

23

권역으로 묶으면 제조·에너지의 미스매치는 줄고, 디지털은 그대로다

권역으로 묶으면 제조·에너지 불일치의 상당 부분(42~80%) 상쇄, 디지털은 권역 사이의 문제로 잔존

지역 미스매치 자수 M



권역 내 상쇄

~80%
~76%
~52%
~51%
~46%
~45%
~42%
~33%
~25%
~24%
~23%
~16%
~13%

해석

- 의미 17개 시도 M - 8개 권역 M = 같은 권역 안 시도 사이의 불일치
- 상쇄 큼 이차전지 80% · 첨단소재 76% · 수소 52% · 항공드론 51% · 로봇 46% · 신재생 42%
- 상쇄 작음 AI 13% · 빅데이터 16% · 클라우드 23% → 수도권·비수도권 사이의 불균형

시사점

- 권역 안 과제 제조·에너지: 권역 내 통근·인력 순환·공동 교육으로 흡수 여지
- 권역 사이 과제 디지털: 원격·하이브리드 매칭 인프라, 주거·교통 지원, 기업 분산 배치 유인

M(8권역) ≤ M(17시도)는 항상 성립 → 정책 효과가 아닌 불균형 발생 단위의 분해

자료: 정지은·최(2025), '정부차별 신기술 인력수급 분석 지원 5. 신기술 발전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자료 2025-22, V = 워크넷 상용직 모집인원(아간월), U = 구직자(고용보험 상실자 포함)으로 근사, 상실월, 22개 분야는 KSDC 대응, 2018.01-2023.11 합산, 권역: 수도권·충청권·대경권·동남권·광주전남(5개), 강원·전북·제주(3개), 디지털 분야 급간 불균형은 같은 보고서 p. 101.

05

PART

정책은 무엇으로 방향을 잡나

네 가지 발견 · 분야 유형별 처방 · 설계 절차 · 부처 간 데이터 연계

결론 · 네 가지 발견

25

분석이 말해 주는 네 가지

관측 결과의 종합 — 인과·정책효과 추정이 아닌 수요·수급 구조의 진단

01 수요의 공간 분리

디지털은 서울·수도권, 제조·에너지는 비수도권에 특화

블록체인 79% · AI 60% 서울 소재 / 전남 신재생 LQ 6.2 · 경남 3D프린팅 4.8 · 충남 디스플레이 4.7

02 특화 분야의 구인 압력

비수도권 특화 분야 관련 산업군의 인력 확보 여건은 대체로 빠듯

비수도권 특화 42개 중 32개 $R > 1$ · 상당수는 지역 전체의 구인 압력과 동행

03 권역 단위와의 의미

배터리·소재·에너지·로봇의 불균형은 권역 안, 디지털은 권역 사이에서 발생

권역 내 상해율: 이차전지 80% · 로봇 46% · 신재생 42% vs AI 13%

04 정책 방향과의 정합성

정책의 권역 방향은 에너지·로봇에서 관측 수요와 일치, AI는 수요 신호 약함

비수도권 권역의 AI LQ 0.50-0.76(제주 제외) · 에너지·배터리 공고의 AI 동시태그 1% 미만

한 문장으로 — 신기술 인력 불일치는 분야마다 다른 공간 단위에서 발생 → 정책도 분야별로 다른 공간 단위로 설계

결론 · 분야 유형별 처방

26

분야 유형에 따라 처방과 공간 단위가 달라야 한다

제조·에너지는 권역 안의 인력 양성·정착, 디지털은 수요 창출과 연결 인프라가 핵심

유형	해당 분야	분석의 근거	선행연구 진단	처방	공간 단위
제조·에너지형 상시 인력부족	이차전지 · 첨단소재 · 디스플레이 · 신재생 · 로봇	비수도권 특화(LQ 2-6) · $R > 1$ 다수 · M 9-15(로봇 25) · 권역 내 상해 42-80%(디스플레이 25%)	상시 높은 구인배율 → 구조적 인력 부족	중장기 인력양성(대학·전문대·훈련·직업계고), 지역 거점 특화 브랜치, 산단·주거·생활 인프라 확충	권역 안
융합·순환형 경기 민감	수소 · 항공드론 · 3D프린팅 · 바이오헬스	중간 수준 M(16-21) · 권역 내 상해 24-52% · 제주·전남 수소 R 높음	2021-22 일시 급등 후 완화 → 순환적	재직자·전환 대상 맞춤형 교육, 경기 조정기 고용유지 지원	권역 안 + 사이
디지털형 일자리 부족·인력 문제	AI · 빅데이터 · SW · 메타버스	서울 소재 54-63% · 권역 내 상해 13-16% · 비수도권 AI LQ 0.5-0.8 · 에너지·배터리 AI 동시태그 1% 미만	상시 낮은 구인배율 → 일자리 부족·매칭 비효율	비수도권 수요 창출(형성기업·실증), 원격 하이브리드 매칭 인프라, 인턴·주니어 진입 경로	권역 사이

공동 기반·연결(매칭) 인프라

- 직무 정보 신기술 분야별 표준 직무·필수 역량·경력 검토 제공, 채용공고 정보 품질 제고
- 고용서비스 신기술 전담 커리어 상담·매칭 인력 확충 — 인력양성 규모 확대면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연결 문제' 대응

결론 · 제언

27

권역 인재정책의 방향은 이런 수급 분석으로 잡아야 한다

특정 산업·정책 결정이 아닌, 수요 진단 → 수급 진단 → 공간 단위 → 모니터링의 근거 절차 제도화



특정 산업 선택보다, 그 선택을 검증할 측정 체계의 선행 구축이 중요

결론 · 데이터 기반

28

정교한 수급 분석에는 부처 간 데이터 연계가 필요하다

수요(구인공고)·공급(졸업자)·이동(고용보험)을 한 틀로 잇는 상시 연계 체계 = 권역·분야별 수급 진단의 전제



한계 극복 방향 — 과제 단위 제공·파기에서 상시 연계·분석 체계로

- 상시 이동 체계 인력수급 분석 목적의 상시 이용 권한, 반복 없이 분석하는 안전한 원격 분석 환경
- 부처 간 결합 졸업자 취업통계(교육부) × 고용보험 DB(고용부) × 구인공고의 가령 결합 → 졸업·취업·이동 경로 추적
- 공통 분류 학과·업종(KSIC)·직종(KECO)·공고 키워드를 잇는 신기술 분야 공통 대용표
- 협업 가버넌스 범부처 인력수급 데이터 협의체, 분석 결과의 정례 공개 활용

맺음

권역의 신기술 인재정책, 수요와 공급의 지도로 설계

어디에 어떤 신기술 수요가 있고, 그 일을 할 사람이 어디에 있는가를 같은 틀로 진단

01

분야마다 수요의 자리가 다름

디지털은 서울·수도권, 제조·에너지는 비수도권·인재양성의 목표·학력·경력도 분야별 차등

02

특화 분야의 인력 압력은 지역 전체와 함께 판독

분야 고유의 부족인지 지역 전반의 부족인지 구분해야 처방이 달라짐

03

권역은 제조·에너지에 유호, 디지털·AI는 권역 사이의 과제

권역 내 순환·공동 교육 과정과 수도권 밖 수요 창출 과정의 분리

감사합니다

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발 표 2

지역인재 정착과 대학의 역할: 정책 동향과 과제

주희정 선임연구위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평생직업·진로교육연구본부 국가진로교육연구센터)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개원 29주년 심포지엄

지역인재정책과 대학의 역할

정책 동향과 과제

2026. 10. 2.

주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발표 구성

1

01 들어가면서

혁신성장과 대학: 창조적 파괴, 진파성장, 중요소생산성

2

02 지역의 인재

교육-직업 이동, 재직학생, 연구인력, 기술이전

3

03 정책 동향

역대 정부 지방대학 정책과 현 정부의 추진 전략

4

04 향후 과제

공유-협력, 교육청-지자체 연계, 지역혁신, 정부

5

05 제언

지역인재정책에서 우리원의 역할

01

들어가면서

혁신 주도 성장의 시대, 대학의 자리 점검

1-1

지속적 성장의 원천은 기술혁신

2025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의 공통 주장

조엘 모키어 (Joel Mokyr)

- 기술진보를 통한 지속성장의 전제조건 규명
- 과학적 지식과 실용 기술의 결합, 변화에 열린 사회·제도가 성장의 토대

필리프 아기옹 · 피터 하윗

- 창조적 파괴를 통한 지속성장 이론 (1992) 정립
- 새 기술·기업이 기존을 대체하며 생산성이 높아지는 과정을 모형화

3+1 진파성장 전략



창조적 파괴 (Creative Destruction)란?

- 혁신이 낳은 기술·기업·일자리를 대체하며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과정 (슈페터)
- 성장의 이면에는 기존 산업·일자리의 소멸이 있어, 경쟁 환경과 사회적 완충 장치가 함께 필요

자료: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경제학상 발표 (2025.10.)

1-2

혁신이 성장의 원천, 대학이 혁신인재의 원천

‘진짜성장’ 전략은 창조적 파괴의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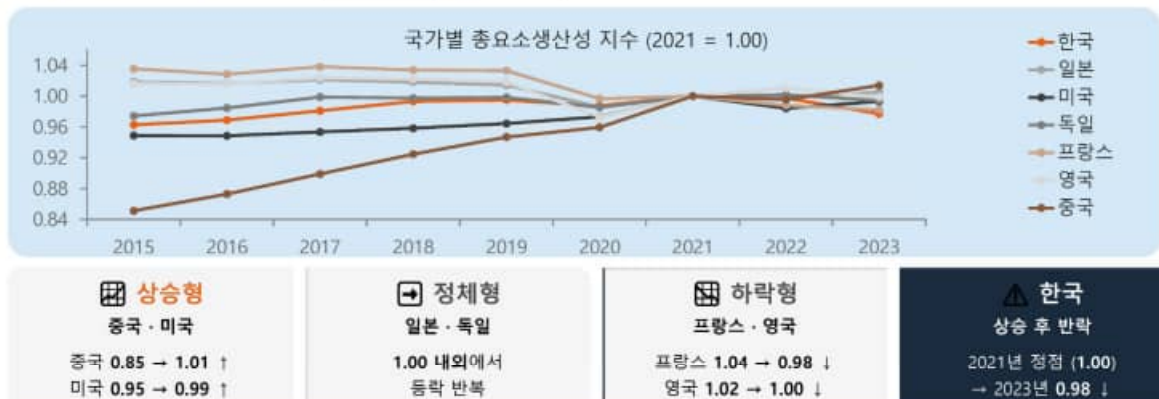
시사점 요소투입형 성장이 한계에 이른 한국은 중요소생산성(혁신) 주도 성장이 필요하며, 혁신인재를 길러내는 대학의 역할이 핵심

자료: 국립기획위원회,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2025.8)

1-3

한국의 중요소생산성(TFP), 상승 후 정체 위험

국가별 중요소생산성 지수 추이 (2015~2023, 2021=1.00)



⚠ 위험 신호 혁신 주도 성장이 필요한 시점에 중요소생산성이 정체되는 위험 신호

주: 2021년 = 1.00 기준 지수. 자료: 발표자 제공 표

1-4

경제활동인구의 고학력화, 2배 이상 증가

경제활동인구 중 전문대졸 이상 비중 변화 (2000~2025)



2배 이상 증가

전문대졸 이상 비중

24.50% (2000) → 53.05% (2025)

대학교졸 비중

16.9% → 39.3%

고학력화를 주도

중졸 이하 비중

31.1% → 11.3%

고졸 44.4% → 35.7%

자료: 국가데이터센터 경제활동인구조사 * 본 자료는 직능연이 현재수형 중인 '혁신성장을 위한 세대통합형 인력자원개발 방안 연구'(주희영 외, 2026)에서 발췌

1-5

경제성장률 하락에도 대학 선호는 지속

국내총생산·경제성장률과 대학 진학 추이



진학률 · 교육기회 확대

경제활동인구 내 대졸자 증가는 높은 진학률과 대학 교육기회 확대가 뒷받침

성장률 하락에도 대학 선호 지속

국내총생산은 높았지만 경제성장률은 장기적으로 하락 — 그럼에도 대학 선호는 여전한

IMF 이후 뚜렷해진 선호

IMF 외환위기 이후 일반대학과 대학원 진학 선호가 더욱 뚜렷해짐

☐ 성장률 하락에도 지속되는 대학 선호 → 노동시장 기대구조의 구조적 문제 시사

자료: e-나라지표, KEDI 교육통계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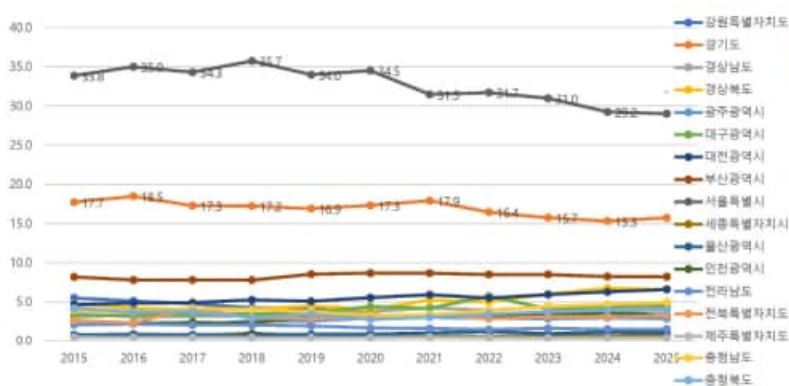
지역의 인재

데이터로 본 인재의 이동과 정착

2-1

고등교육 기회의 공간적 편중, 이미 시작됐다

시도별 교육 사유 전입 비중 추이 (2015→2025)



33.8% → 29.2%

서울 비중 감소에도 압도적 1위 유지

17.7% → 15.3%

경기: 일부 감소, 서울과의 격차 속 중심성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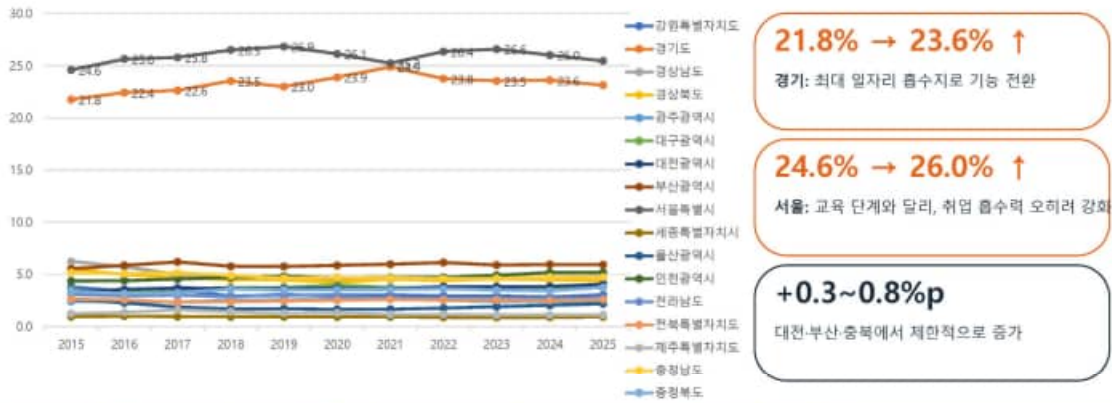
+2.0%p

대전 4.6% → 6.6%
비수도권 선별적 거점 부상

주: 교육 사유 전입자 중 시도별 비중(2015→2025). 자료: 통계청, 국내연구이동통계

2-2

취업 단계에서 심화되는 수도권 집중



주: 취업 사유 전일자 중 시도별 비중 (2015→2025).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2-3

학령인구 감소가 비수도권 대학을 더 빠르게 약화시킴

전문대학·일반대학 재적학생 수 변화 (2015→2026)

전문대학 (2015→2026)

수도권: -21.3%

비수도권: -3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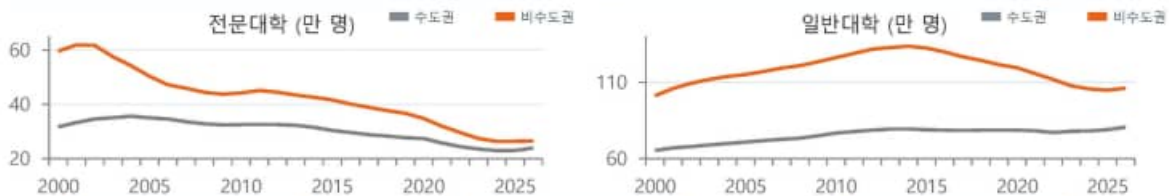
수도권 비중: 42.2% → 47.4% (↑)

일반대학 (2015→2026)

수도권: +2.2% (성장)

비수도권: -19.8% (급감)

수도권 비중: 37.3% → 43.2% (↑)



학생 감소

지역 대학 신입생 급감으로 재정·규모 축소

경쟁력 약화

프로그램·교수진·인프라 투자 여력 소멸

수도권 집중 심화

더 많은 학생이 서울·경기 대학으로 이동

구조적 악순환: 학령인구 감소는 수도권·비수도권 대학에 비대칭적으로 작용 → 비수도권이 충격을 과다 흡수하며 질종 가속화

주: 재적학생 기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2-4

연구인재의 원천인 대학원생, 수도권에 더 빠르게 집중

대학원 재적학생 수 변화 (2000~2025)



+2.2만 명

수도권 대학원생 증가
(18.7만 → 20.9만 명)

+12.0% vs +5.1%

2015~2026 증가율
수도권 vs 비수도권 — 2.4배 격차

55.9% → 57.5%

수도권 비중
(2024년 58.6% 최고)

1 **혁신인재 집중**

대학원생(석·박사)이 혁신을 이끄는 핵심 연구·개발 인력

2 **수도권 편중 가속**

증가율 격차(12.0% vs 5.1%)가 집중도를 구조적으로 심화

3 **지역 혁신 역량 약화**

혁신인재 유출로 지역 연구·산업 생태계 기반 붕괴

수도권 대학원 집중도가 가속화되고 있어, 지역 혁신 역량 확충을 위한 대응이 시급함

주: 석·박사 재적학생 집계. 수도권 = 서울·인천·경기. 자료: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

2-5

혁신을 이끌 연구인력의 3분의 2가 수도권에 집중

유형별 연구인력의 지역 분포 (2024)

구분	수도권	비수도권
전체	64.9%	35.1%
기업체	74.7%	25.3%
대학	53.9%	46.1%
공공연구기관	28.0%	72.0%

☞ 기업체 74.7% vs 공공연구기관 28.0% — 부문별 편중 구조가 극명하게 다름

54.4만 명

수도권 연구인력
(전체 84.0만 명 중 64.9%)

7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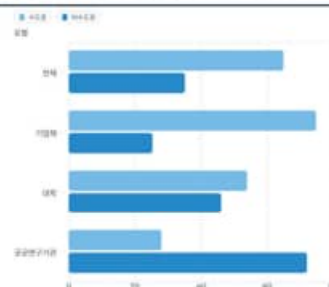
기업체 연구인력의 수도권 집중
→ 혁신 R&D 역량의 극심한 편중

28.0%

공공연구기관만 비수도권 비중이 높아, 지역은 공공 부문 의존 심화



자료: 국가통계포털(KOSIS), 연구개발활동조사



2-6

대학 기술이전도 수도권 우위 압도적

권역별 대학 기술이전 현황

☞ 비수도권 대학 기술의 최대 45.5%가 지역 밖으로 유출 — 경제적 파급효과는 수도권에 흡수



83.3%

수도권 대학 기술의
지역 내 흡수율
→ 지역 혁신 생태계 자생

54.5~69.7%

비수도권 대학의
지역 내 이전 비율
→ 최대 45.5% 외부 유출

2~3배

수도권 대학의
1건당 기술이전 평균액
→ 기술 가치 격차 심화

수도권 선순환 구조

수도권 대학 → 수도권 기업 → 수도권 경제 성장

비수도권 기술 유출 구조

비수도권 대학 → 기술 외부 유출 → 지역 경제 정체

자료: 주위현, 이재열(2025).

2-7

지역인재의 현주소: 취업 단계의 대규모 수도권 이동

왜 취업 단계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가?

초임 격차

수도권 취업 시 초임 259만 원 vs 지역 잔류 245만 원
월 14만 원 연 168만 원 차이
→ 임금 격차가 이동의 1차 유인

수도권 취업 집중

강원권 졸업자의 63.6%, 충청권 졸업자의 58.6%
수도권에서 첫 일자리 시작
→ 양질의 일자리 부족이 이동의 2차 유인

Part 02 종합 결론

교육 단계

지역 대학 선택 여지 존재
수도권→비수도권 진학 9.8%
역방향 2.2%보다 4배 이상

취업 단계 ← 핵심

수도권 집중 급격히 심화
비수도권→수도권 취업 11.0%
역방향 1.1%의 10배

현황

비수도권 대학 졸업생의 20.5%
현재 수도권 거주 (5명 중 1명)

원인

초임 259만 원 vs 245만 원
월 14만 원 임금 격차
+ 경력 기회 격차 누적

◎ 진단 함의:

교육 단계는 지역 선택 여지 존재, 취업 단계의 임금·기회 격차가 청년 유출의 핵심 원인

자료: 국회미래연구원(2026), 청년의 지리적·사회적 이동; 한국교육개발원(2024) 보도자료.

03

정책 동향

역대 정부의 지방대학 정책과 현 정부의 추진 전략

3-1

지방대학 정책은 '법적 기반' → '지역혁신' → '글로벌 경쟁력' → '성장엔진 연계'로 진화

역대 정부의 주요 정책 흐름



자료: 교육부 발표 자료 및 정책 문서

3-2

정부마다 반복된 이중 전략: 집중 육성 + 공유 협력

명칭은 달라져도 두 가지 축은 동일



자료: 교육부 발표 자료

3-3

거점국립대 중심, 세 가지 지원 축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 (2026.4.)



☐ 특성화 융합연구원 교원 연구비 한도 없음, 교원 승진 청년보장 심사 강화 | 9개교 총 5,448억 원(권역별 공유대학 1,200억 원 포함), 8개 부처 범정부 협의회

자료: 교육부(2026.4.15.), 성장엔진 연계 지역인재 양성방안 보도자료

3-4

서울대 10개 만들기: 9개 거점국립대 집중 육성

국정과제 55-1, 지역 성장·지산학연 협력 거점으로
2025.9.

지발대학 육성방향(안)

2026.6.

패키지 지원대학 선정계획 확정

1

2

3

4

2026.4.

성장연진 연계 양성방안

2026.9.1.

부산대·천남대·충남대 선정

9개

거점국립대

비수도권 대상, 2026~2030년

4조 원

5년간 총 투입

법정부 패키지 지원 계획

3,900억

교당 5년 지원

선정교 기준 약 3,900억 원

주요 내용

- 대상: 비수도권 9개 거점국립대, 2026~2030년
- 5년간 총 약 4조 원 투입 계획
- 선정교: 올해 약 700억, 내년 약 800억 원, 5년간 교당 약 3,900억 원

자료: 교육부 발표(2026.9.1.) 및 언론 보도

현황과 쟁점

- 성과관리위원회: 1년차 조직 구축 → 2~3년차 프로그램 → 취업률·지역 정주율
- 9개교 동시 지원에서 3개교 우선으로 선회
- 나머지 6개교 확대 예정

3-5

권역별 공유대학, 거점국립대 자원 개방

초광역 인재양성: 5극3특 공유대학

1,200억

2026년 예산

5극3특 공유대학

9개

권역 모델

5극3특 거점국립대 중심

4년

추진 기간

2026~2029년 (9월 착수)

주요 내용

- 거점국립대 + 일반·사립·전문대 참여
- 기업과 전략산업 교육과정 공동 개발, 권역 학생에게 개방
- 교원·석박사생 공동 R&D, 연구시설·장비 공유 플랫폼
- 거점국립대 인프라 활용 창업 지원

권역 사례

- 대경권: 경북대 중심, 반도체·로봇·이차전자·모빌리티·바이오 5개 분야
- 제주권: 제주대(에너지)·제주관광대(관광)·제주한라대(우주), 공통 과제 바이오

□ 공유대학 모델: 거점국립대 주도의 권역 내 자원 공동 활용 → 지역 인재양성 역량 극대화

자료: 교육부(2026.6.23.) 추진계획 및 지자체 발표

3-6

초광역 성장엔진 인재육성, 6개 모델 선정

19개 제안 중 6개 선정 (2026.9.8.), 모델당 연 최대 150억 원 × 약 4년

올해 800억 원

2026년 투자 예산

약 1.4만 명

2030년까지 양성 목표

기업 참여

SK하이닉스, 유한양행, 메가존 등

권역 (주관 지자체)	주관대학	분야	양성 목표
경남·인천·강원	경남대	제조 AX-AI 로봇	1,500명
경북·대구	국립금오공대	반도체·AI 제조로봇	3,000명
세종·충북	고려대(세종)	반도체	2,000명
전남광주	국립목포대	재생에너지·RE100	2,800명
전북·경기	우석대	수소·피지컬 AI	2,000명
충남·경기·대구	단국대	AI 기반 첨단바이오	2,600명

☒ **현황:** 이의신청 후 확정, 9월 중 재정 배분 통지 / 영커 성과예산 약 4,000억 원 차등 배분. 반도체·재생에너지·수소·AI·로봇·바이오 등 핵심 성장엔진 분야를 6개 권역에서 동시 육성하는 초광역 인재양성 체계 구축.

자료: 교육부 (2026.9.8.)

04

향후 과제

경쟁보다 협력, 진학 이후의 정주까지

4-1

대학경쟁에서 협력 전환

컨소시엄 내 중심-주변 구조의 문제점



연계가 일부 중심 대학에 집중

Hub-and-spoke 구조 형성

주변부 대학은 명목상 참여에 머물 위험

실제 교류 부족

실제 교류량 성과관리 필수

공동 교육과정 이수, 장비 공동활용 등

해결책

- 참여 대학별 역할과 성과·예산 배분 원칙을 사전에 설계
- 공동 교육과정 이수, 장비 공동활용 등 “실제 교류량”을 성과지표로 관리
- 정기적 평가와 피드백 시스템 구축

자료: 주원정, 이재열 (2025)

4-2

교육청과 지자체, 서로 다른 목표

고교-대학-지역을 잇는 경로 설계 필요

교육자치단체 (교육청)

“서울대 보내기”

상위권 대학 진학 실적 중심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지방대학 활성화”

지역 대학 진학·취업·정주 중심

필요한 연결고리

고교 → 대학 → 취업 → 정주
교육청과 지자체의 협력 필요

해외 참고 사례

일본

고교-대학 연계 (高大連携)

미국

커뮤니티 칼리지 → 주립대 편입 보장,
고교 재학 중 대학학점 선이수 (Dual Enrollment)

교육청의 상위권 대학 진학 목표와 지자체의 지역 정주 목표를 조화시키는 정책 설계가 필수

4-3

지역혁신의 엔진, 대학원과 연구력

대학발 기술이 지역 경제로 연결되는 구조



일본의 지역혁신 사례

SPARC 문부과학성 정책특정형 지원특별사업 구마모토대·현립구마모토대가 지역과 연계해 반도체(CX) 교육·연구	TSMC 일본법인 (JASM) 구마모토대 반도체 분야 대학원생 장학금 해외 연구 여비 지원	JST SPRING 박사후기과정 학생 생활비 연구비 지원
--	--	---

자료: 구마모토대·구마모토현립대학 SPARC 연내, 구마모토대 JASM 장학금 공고(2026)

4-4

정주 여건, 교육만으로는 부족

배우고 일하고 살 수 있는 지역 조성 필요

주거 정주의 핵심 청년·대학원생 주거 마련 (기숙사, 청년주택, 주거비 지원)	문화 머물고 싶은 지역 문화·여가 인프라 조성, 청년 커뮤니티 공간	일자리 지속가능성 전공 연계 양질의 일자리, 성장발전 기업과의 연계
---	---	---

통합 추진 전략

- 1 대학-지자체-기업 협력과 함께 주거·교통·의료·문화 등 정주 기반 개선을 병행 추진
- 2 지자체 사업과 부처 사업(국토·산업·고용)을 정주 성과 중심으로 연계

□ 교육정책만으로는 지역 정주가 불가능하며, 주거·일자리·문화 등 생활 전반에 대한 통합적 지원이 필수

참고: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포럼 브리프 (2026.7.)

05

제언

지역인재정책에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역할

5-1

지역인재정책, 우리원이 해야 할 네 가지

교육-일자리-정주를 잇는 '이음'의 연구기관으로

우리원의 강점

지역인재-산업 연계 특화 연구력

혁신성장-인적자원 연계 전문성

교육-노동시장 이행 데이터·패널 축적

01 데이터 허브

이동-정주 추적 체계

- 교육-취업-정주 전 주기 추적: 보유 패널(KEEP-HCCP 등)과 행정데이터 연계
- 권역별 유출-정착 경로 정례 모니터링
- 서울대 10개-공유대학 '지역 정주율' 성과 산출 기반 제공

02 수급 연계

성장엔진-인재 매칭

- 반도체·바이오·에너지 등 권역 성장엔진별 인력수요·역량 분석
- 산업 요구역량 → 교육과정·자격 설계 근거 제공
- 재직자-중소기업 연구인력 역량개발 모델 제시

03 성과관리

공유·협력 성과체계

- 공유대학·초광역 사업 성과지표 개발(실제 교류량 중심)
- 컨소시엄 네트워크 진단과 개선 컨설팅
- 중심-주변 구조 완화를 위한 역할·예산 배분 원칙 제시

04 정책 브리지

부처·지역·국제 연계

- 교육-고용-산업-국토 부처 사업을 정주 성과로 연결
- 교육청-지자체-대학을 잇는 고교→대학→취업 경로 설계 지원
- 일본 등 국제 협동연구로 정책 근거 축적

☐ 정책 설계부터 성과 관리까지, 지역인재-산업 연계의 근거를 제공하는 **국가 싱크탱크**로

감사합니다

지역인재정책과 대학의 역할: 정책 동향과 과제

주희정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2026. 10. 2.

발 표 3

청년층의 이동과 고용에 대응하는 지역인재정책의 재정립

백원영 센터장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고용능력연구본부 지역·산업HRD연구센터)

청년층의 이동과 고용에 대응하는 지역인재정책의 재정립

2026.10.2.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백 원 영

1

01 청년은 언제, 왜 떠나는가 | 권역별 청년 인구 이동 양상

▣ 권역 간 청년층(15~34세) 이동 양상(2015~2025년)

전출지별 청년층 이동인구 중 각 전입지가 차지하는 비중 (단위: %)

전출지 \ 전입지	수도권	동남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강원	제주
수도권	-	18.1	35.3	16.8	13.5	12.2	4.0
동남권	56.4	-	11.3	6.6	21.1	2.6	2.1
충청권	69.5	8.1	-	9.6	8.0	3.8	1.0
호남권	60.5	9.9	21.1	-	4.7	2.2	1.6
대경권	50.2	26.5	15.1	3.8	-	3.2	1.2
강원	69.5	6.1	13.7	3.6	6.5	-	0.6
제주	59.8	14.4	8.8	7.6	7.4	2.1	-

* 동남권(부산·경남, 대전·충청·대구·경북), 호남권(광주·전남·전북)

▶ 수도권 전입 비중 평균 60% 이상 집중

자료: 국가데이터처의 「국내이동통계」 2015~2025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임.

총 전입지 1위 전입지

69.5%

충청·강원권의 수도권 유출률

충청권과 강원권에서 이 권역으로 이동하는 청년 10명
중 약 7명이 수도권으로 이동하여 70% 높은 수도권 지
분을 보임.

전출 지역 비중

50%+

지방 전출 청년의 수도권 이동

대전권(50.2%)을 포함하여 수도권으로 가는 청년에서
이 지역 비중 평균이 과반수 이상인 수도권 지역 집중.

전입 지역 비중

26.5%

대경권 → 동남권 이동 비중

수도권 지역도 대경권 유입전(26.5%), 동남권 충청권
(21.1%) 등 지역이므로 전입권 지역 비중 30% 정도 지
분을 보임.

2

01 청년은 언제, 왜 떠나는가 | 권역별 청년 인구 이동 양상

- ▶ **20대 초반 - 진학:** 수도권 대학으로의 진학이 이동을 견인
- ▶ **20대 후반 - 취업:** 수도권 소재 기업 취업이 이동을 견인
 - **진학 단계:** 서울 4년제 대학으로의 유입이 두드러짐 - 대학 서열화, 지역 내 대학 정원, 수도권의 편의성이 작용
 - **취업 단계:** 유입 범위가 서울에서 '수도권 전반'으로 확대됨 - 즉 진학 때는 서울에 집중되던 이동이, 취업 단계에서는 경기·인천까지 포함한 더 넓은 수도권으로 퍼짐

자료: 한요셉 편(2021), 「청년층의 지역 간 이동에 관한 연구: 대학 진학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3

02 청년 고용, 전국적으로도 흔들린다 | 청년 고용 4대 핵심 지표

36개월

청년 취업자 연속 감소

2026년 5월 기준
전년 대비 -17만 명

66.5%

청년 고용률

2026년 5월 기준
전년 대비 1.1%p 하락

5.6%

청년 실업률

2026년 5월 기준
4년 만에 최고치

-4.2%p

20~24세 고용률 하락폭

2026년 5월 기준 전년 대비
전 연령대 중 최대 하락폭

주: 만 19~34세 청년인.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2025, 2026년 각 연도 5월.

4

02 청년 고용, 전국적으로도 흔들린다 | 장기 감소 요인 및 고용 침체 구조

핵심 관측 지표

36개월

청년 취업자 연속 감소세 지속

-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17만 명 감소
- 청년층 고용률 66.5% (전년 대비 -1.1%p)

1. 신규 채용 시장 위축

기업들의 경력직 중심 채용 선호 현상과 수시 채용 전환으로 인한 첫 진입 장벽 상승

2. 연령 구조 변화 및 인구 감소

청년층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기저 효과와 경제 활동 참가 지연 현상 동시 발생

3. 노동시장 불확실성 지속

제조업 및 일부 서비스업 채용 규모 축소에 따라 청년층 고용 타격 장기화

5

02 청년 고용, 전국적으로도 흔들린다 | 초기 진입층 충격 및 실업률 착시 효과

초기 진입층 타격

-4.2%p

20~24세 고용률 하락폭

전 연령대 중 고용률 감소 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 대학 졸업 직후 취업 시장 진입 충격 집중

최대 하락

실업률 추이

5.6%

청년 실업률 현황

2026년 5월 기준 5.6%를 기록하며 최근 4년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 청년 고용 체감 경기 급행

4년 만에 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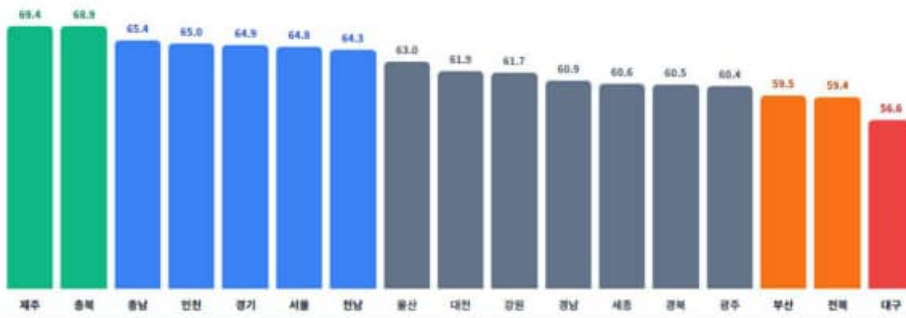
시사점: 고용률 감소와 실업률 상승의 동시 발생

고용률 감소와 함께 실업률이 4년 만에 최고치(5.6%)를 기록하면서 청년층 신규 진입 위축과 노동시장 경색 심화

6

02 청년 고용, 전국적으로도 흔들린다 | 지역별 청년고용률 격차

17개 시·도별 청년고용률 순위 및 비교 (%)



주: 만 19~34세 청년임.
자료: 국가데이터저, '지역별고용조사', 2025년 하반기.

최상위권 그룹 68.5% 이상

제주(69.4%), 충북(68.9%)
· 제주: 서비스/관광 산업 수요 지속
· 충북: 제조업 및 바이오/반도체 단지 조성 효과

수도권 중심군 64.3% ~ 65.4%

인천, 경기, 서울, 충남
· 풍부한 양질의 일자리: IT·금융·서비스 인프라 집중
· 청년 인구 흡수: 비수도권 청년층 유입 가속화

고용 침체군 60.0% 미만

부산(59.5%), 전북(59.4%), 대구(56.6%)
· 산업 구조 문제: 전통 제조업 위축 및 신산업 부족
· 대구·최저지: 지역 산업 재편 지연 영향

7

03 '일자리 → 인구'는 사실일까 | 위기 발생 시점 및 회복 경과에 따른 유형별 대표 사례

사례 1

군산시

자동차·조선업

2018년 최초 지정

위기 후 시간이 가장 많이 지난 장기 경과 사례

사례 2

거제시

조선업

2018년 지정 ('21-'23년 2차 연장)

산업 수주 회복이 현재 진행 중인 사례

사례 3

포항시

철강업

2022년 지정, 2025년 재지정

재해(태풍 힌남노 피해) 복구 및 가장 최근의 현재진행형 사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포항시)

위기 발생 우려 시 선제적 대응을 통해 경제적 손실을 예방하는 지정 구역

- ✓ 목적: 구조 개편 및 예방적 지원
- ✓ 지원: 연구개발, 금융 및 사업 전환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군산시·거제시)

주요 산업이 현저한 침체로 급격한 경제 위기가 발생한 지역 긴급 지원

- ✓ 목적: 긴급 구제 및 고용 안정
- ✓ 지원: 소상공인 지원, 특별고용지원

8

03 '일자리 → 인구'는 사실일까 | 산업 쇠퇴 3개 지역 실증

군산

자동차·조선

2017~2018: 조선소 중단 및 GM 공장 폐쇄
(1.5만 명 손실)

청년고용률: 48.7% → 63.3% (2021→2025년 하반기)

청년인구 비중: 20.0% → 18.3% (2021→2025년
하반기), 2024년 30대 순유입 전환

8~9년 만에 30대부터 돌아오기 시작

거제

조선업

조선업 종사자 수: 8.1만 명 → 3.8만 명 (2015→2021년)

청년 순유출: 2,693명 → 1,084명 (2021→2025년)
사유 36.7% '직업'청년고용률: 63.9% ('25년 하반기 기준,
'21년 하반기 대비 +3.7%p)

일자리는 변동, 유출은 계속

포항

철강

청년 순유출: 최근 10년간 2만 명
(2016~2025년, 전체의 83.1%)

청년고용률: 65.8% → 67.4% (2024→2026년 상반기)

청년실업률: 7.4% → 8.3% (2024→2026년 상반기)

철강생산: 17.6조 → 14.9조 원 (2014→2024년)

단기 변동: '26.7 철강 생산액 전년 동월 대비 9.0% 증가

단기 변동에도 구조적 하락 압력 지속,
고용은 양호하나 실업 확대

주: 만 19~34세 청년임.

자료: 국가데이터처, 「지역별고용조사」, 각 연도: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각 연도: 거제시 데이터포털; 포항철강산업단지관리공단; 한국은행 포항본부(2026.9)

9

03 '일자리 → 인구'는 사실일까 | CASE 1. 군산시(자동차·조선)

구조조정 극복과 30대 인구 유입 전환

위기 충격 (2017~2018)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및 한국GM 공장 폐쇄로
1.5만 명 규모 일자리 손실

청년고용률 변동

63.3%

2021년 48.7% 대비 +14.6%p

30대 순유입 전환

2024년

8~9년 만의 청년층 돌아오기 시작

"구조조정 터널을 지나 8~9년 만에 30대 유입 결실"



10

03 '일자리 → 인구'는 사실일까 | CASE 2. 거제시(조선업)

일자리 지표 반등과 구조적 인구 유출 병존



조선업 종사자 급감 (2015~2021)
8.1만 명 → 3.8만 명

청년 순유출 둔화 (2021→2025)
2,693명 → 1,084명
36.7% 유출 사유 '직업'

청년고용률 (25년 하반기)
63.9%
21년 하반기 대비 +3.7%p

"고용 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인구 유출은 지속되는 과제"

11

03 '일자리 → 인구'는 사실일까 | CASE 3. 포항시(철강업)

안정적 고용 기반 속 청년 유출과 철강 생산 감소

최근 10년 청년 순유출 (심각한 인구 구조)
2만 명 유출 (전체 유출의 83.1%)

청년 고용률 (2026년 하반기 기준)
67.4%
한국 평균(63.7%) 상회

청년 실업률 (2026년 하반기 기준)
8.3%
한국 평균(6.1%) 상회

철강 생산액 장기 하락 (2014~2024)
17.6조 원 → 14.9조 원 (20년 7월 +9.0% 반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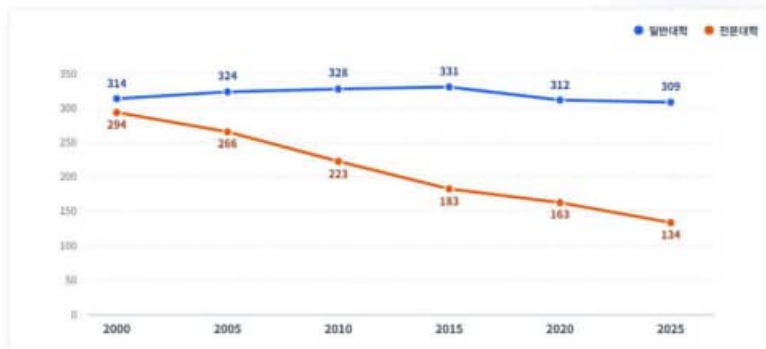
"높은 고용 안정성 유지 속 청년 유출과 생산 저하 극복 과제"



12

04 무너지는 전문대, 정체된 일반대

입학정원 추이(2000~2025년)



전문대학 정원 급감

2000년 294천 명에서 2025년 134천 명으로 50% 이상 급격히 축소되어 학원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받음.

-54.4%

일반대학 완만한 조정

2015년 330천 명 정점 이후 2025년 309천 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완만한 감소세 전환 지속.

-1.6%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연도

13

04 무너지는 전문대, 정체된 일반대

- ▶ 일반대학 연평균 증감률 -0.07%
- ▶ 전문대학 입학정원 연평균 증감률 -3.08%
- ▶ 전문대학은 26년 만에 입학정원이 절반 이하로 감소 - 지역 제조·서비스 인력 양성 기반 약화
- ▶ 양적 교육 인프라 공급 축소 시기, 단순 정원 관리를 넘어 인재의 질적 양성과 정착 전략으로 체질 전환이 시급함

14

05 지역별 인력수요 변화 | 산업별 미충원율

현장경력 2년 미만 제조업 숙련인구 미충원율 (2015.1 vs 2020.1 vs 2024.1)



주: 전체 미충원 인원 중 적음 1수준~적음 2수준의 미충원 비율임
자료: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2015, 2020, 2024 각 연도 상반기.

82.3%

한국 평균 미충원율 지속

10명 구인 시 8명 이상을 채우지 못하는 심각한 구인난이 지속되고 있어, 조금 속한 안락유일의 고개 치닫을 상태임.

39.3%p

지역 간 격차 극대화

최고지역(강원 93.6%)과 최저지역(대전 54.2%) 간의 격차가 39.3%p까지 벌어지며 지방 제조업 체의 인력 고사 위기가 우려됨.

54.2~5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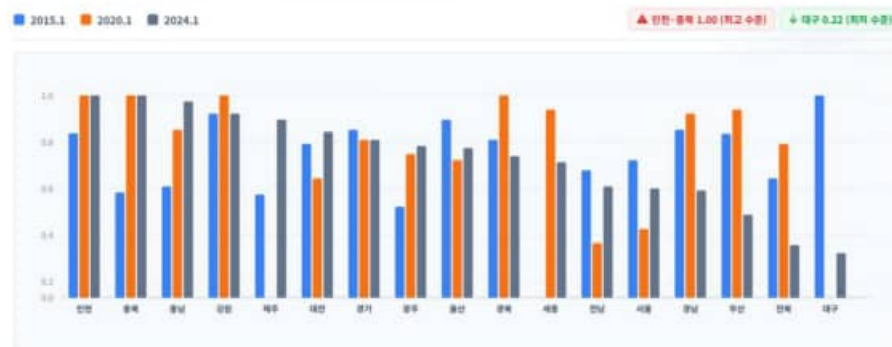
서울 대전의 급격한 개선

연구개발(R&D) 및 지식기반 제조업 비중이 높은 서울과 대전은 미충원율이 50%대로 하락하며, 각 지역과 대조를 이룸.

15

05 지역별 인력수요 변화 | 산업별 미충원율

현장경력 2년 미만 건설업 숙련인구 미충원율 (2015.1 vs 2020.1 vs 202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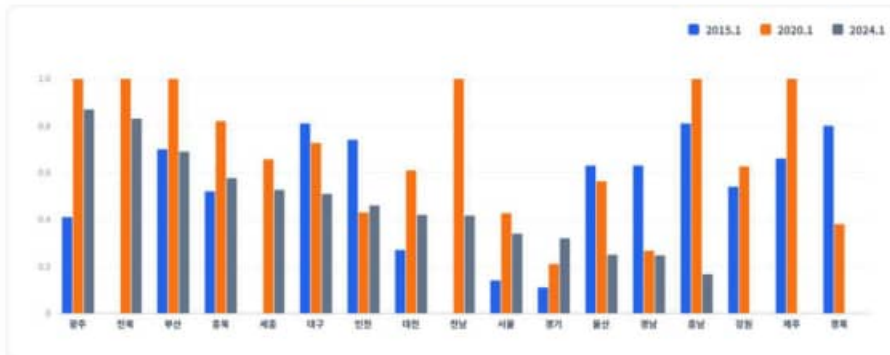


주: 전체 미충원 인원 중 적음 1수준~적음 2수준의 미충원 비율임
자료: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2015, 2020, 2024 각 연도 상반기.

16

05 지역별 인력수요 변화 | 산업별 미충원율

현장경력 2년 미만 정보통신업 숙련인구 미충원율 (2015.1 vs 2020.1 vs 2024.1)



2015년: 광역사관 수급 불균형

대구(91%), 충남(91%), 경기(89%), 인천(74%) 등 주요 광역권 중심으로 현물다을 지역 수준의 지역 미충원 현상이 매우 심각해져 나 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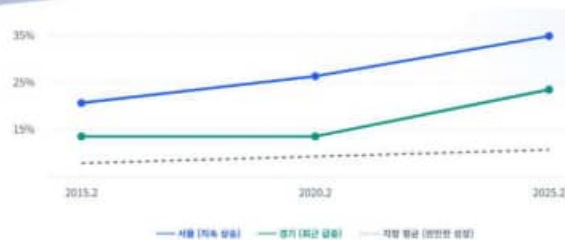
2024년: 광역별 양극화 뚜렷

서울(34%), 경기(32%)는 상대적 안정세를 보이는 반면, 광주(27%), 전북(23%), 부산(22%)은 신규 인력 재공 난항이 지속됨.

주: 전체 미충원 인원 중 적음 1수준-적음 2수준의 미충원 비율임
 자료: 고용노동부, 「직종별사원체노동력조사」, 2015, 2020, 2024 각 연도 상반기.

17

05 지역별 인력수요 변화 | 직종별 취업률(전문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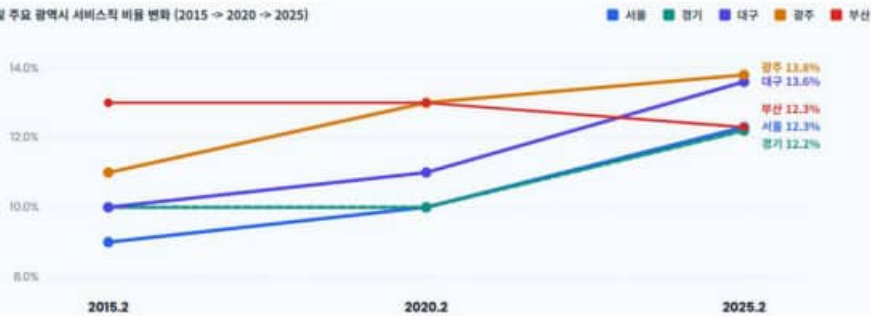
전통적 핵심 분야 연구개발, 정보통신, 금융 및 법률-의료 전문 서비스업의 수요 증가에 따른 전문인력 수요 증가.

주: 취업자 대비 '전문직 및 관련 종사자'의 비율임.
 자료: 국가데이터, 「지역별고용조사」, 2015, 2020, 2025 각 연도 하반기.

18

05 지역별 인력수요 변화 | 직종별 취업률(서비스직)

수도권 및 주요 광역시 서비스직 비율 변화 (2015 → 2020 → 2025)



+3.3%p

전라남도

10.4% (2015) → 13.7% (2025)
고령화 복지 및 보건 서비스 확대

+3.7%p

대구광역시

9.9% (2015) → 13.6% (2025)
도심 서비스 및 대안 서비스 산업 비율 증가

+2.9%p

서울특별시

9.4% (2015) → 12.3% (2025)
자식 서비스 및 상권 재편으로 고용 비율 확대

전국적 상황 평준화 현상

2015년에는 9~10% 수준이었던 광역시 및 수도권 중심지들이 2025년 하반기 기준 12%~13% 이상으로 밀물 상승하며, 전국적으로 서비스업 중심 고용 구조 전환이 가속화되었음.

주: 취업자 대비 '서비스 종사자'의 비율임.
자료: 국가데이터저, 「지역별고용조사」 2015, 2020, 2025 각 연도 하반기.

19

05 지역별 인력수요 변화 | 직종별 취업률(기능 조립직)

순위 (2025 하반기 기준)	지역	2015.2	2020.2	2025.2	10년간 변동폭	특이사항
1위	충청	37.0%	31.8%	30.8%	-6.2%p	한국 최고 제조업 비율 유지
2위	경남	27.0%	24.1%	22.3%	-4.8%p	조선·기계 산업 거점
3위	대구	24.3%	23.4%	22.0%	-2.3%p	부품·섬유 제조 고용 지속
4위	충남	24.0%	21.3%	21.8%	-2.3%p	디스플레이·반도체 산업
5위	인천	26.4%	25.0%	21.2%	-5.2%p	수도권 최대 공업 클러스터
6위	경북	24.4%	22.7%	21.1%	-3.4%p	2020년 일시 상승 후 감소
7위	충북	23.5%	22.8%	20.8%	-2.6%p	바이오·이차전지 제조 확충
8위~12위	광주/부산/전북/대전/전남	17.9%~22.3%	18.8%~21.5%	17.7%~20.5%	-0.3%p ~ +0.7%p	중위권 원만한 감소세
13위~17위	경기/강원/제주/세종/서울	15.2%~21.6%	12.9%~19.3%	10.9%~17.0%	-1.3%p ~ -4.6%p	서비스·IT 중심 산업 구조

주: 취업자 대비 '기능직 및 관련 기능 종사자'와 '정차·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를 합한 비율임.
자료: 국가데이터저, 「지역별고용조사」 2015, 2020, 2025 각 연도 하반기.



제조업 거점 강세 지속

충청, 경남, 대구, 충남, 인천 등 전통적인 공업·제조업 거점 지역이 20% 이상과 높은 기능 조립직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



전반적 하락 평준화

자동차, 공업 부품화 및 지식·서비스 산업 전환 확대에 따라 10년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기능 조립직 비율이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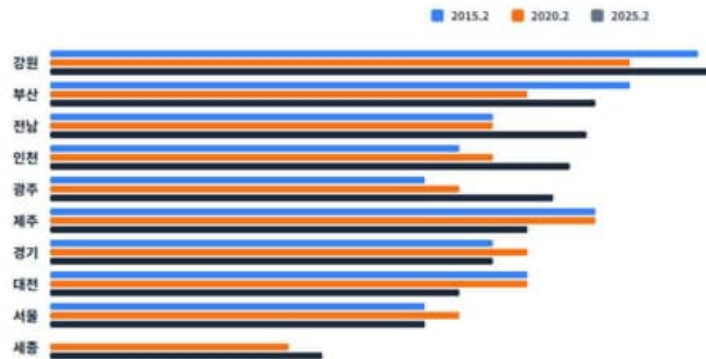


수도권·대도시 격차

서울(10.9%), 세종(11.8%), 경기(17.0%) 등 행정 및 서비스 중심지는 기능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크게 낮음.

20

05 지역별 인력수요 변화 | 직종별 취업률(단순 노무직)



주: 취업자 대비 '단순 노무 종사자'의 비율임.
 자료: 국가데이터저, 『지역별고용조사』 2015, 2020, 2025 각 연도 하반기.

1. 지속 상승형

인천(+3.3%p), 광주(+3.7%p), 전남(+2.8%p)
 울산(+3.6%p), 경남(+3.3%p), 대구(+2.8%p)

물류 단지 확대, 제조업 회복 및 고령화 심화 등의 영향으로 10년간 단순 노무직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2. U자형 반등형

광명(19.4%), 부산(16.0%)
 전북(15.1%), 충남(14.5%)

2020년 코로나19 직격탄으로 일시 감소했으나, 2025년 물가 상승압박과 맞물려 서비스 재물량화로 일종의 반등할 것으로 전망됨.

3. 감소 / 피크후 하락형

제주(-1.8%p), 대전(-1.8%p)
 서울(-0.2%p), 경기(-0.4%p)

지식 기반 서비스업 발전, IT/연구개발 거점화, 2020년 고령화 전환기 - 지식적 비중 확대로 단순 노무직 비율의 하락 전망한 곳임.

21

06 임금근로자의 임금 및 규모 현황 | 왜 그 자리는 안 채워지는가

월평균 임금 현황



자료: 국가데이터저, 『지역별고용조사』 2021, 2025 각 연도 하반기.

22

06 임금근로자의 임금 및 규모 현황 | 고용형태별 수도권-비수도권 격차



자료: 국가데이터처, 「지역별고용조사」 2025년 하반기.

상용직 격차 확대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 집중됨에 따라 상용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격차가 33만 원에서 48만 원으로 확대

비수도권 임시직 정체

비수도권 임시근로자의 임금 상승폭은 5년간 7만 원(132만→140만 원)에 그쳐 상대적 소득 정체 현상이 심화

일용직 격차 축소

전국적인 건설·물류 인력 수요로 인해 비수도권 일용직 임금이 크게 높아(+14.4%) 올해 간 격차가 5만 원으로 줄었음

23

07 청년 당사자 통계로 보면 | 없어서가 아니라, 맞지 않아서 떠난다



9.8개월

첫 취업까지 평균 소요기간



1년 7개월

첫 직장 평균 근속기간



26.2%

전공과 '매우 일치' 취업 비율



45.4%

첫 일자리 이직 사유 1위
'근로여건 불만족'

주: 만 19~34세 청년임.
자료: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2025년 5월.

24

07 청년 당사자 통계로 보면 | 없어서가 아니라, 맞지 않아서 떠난다

첫 일자리 산업 Top 3



첫 일자리 직종 Top 3



주: 만 19~34세 청년임.
자료: 국가데이터저,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2025년 5월.

“청년이 지역에 남았을 때 마주하는 것은 단지 '일자리가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일자리가 이 지역 산업구조와 맞는가'라는 구조적 mismatch 문제

▲ 일자리 질과 전공 불일치

낮은 전공 일치도(26.2%)와 근로여건 불만족(45.4%)으로 인한 조기 이직 고려 차단 필요

▶ 지역 산업 고도화 시급

단순 서비스·숙박음식점 중심 일자리 및 양질의 청년 선호 일자리 생태계 조성 필수

25

08 지역은 하나가 아니다 | 8개 유형 클러스터링

클러스터링 분석 활용 변수 체계

→ 인구·산업·교육·복지·문화 5개 영역, 총 24개 세부 지표 구성

인구 영역 (9개 지표)

축적 지표 및 산출지	출처
총인구 (추정인구)	행정안전부
자연증가율 (출생아 수 - 사망자 수)	통계청
사회증가율 (전입인구 - 전출인구)	통계청
인구밀도 (100인구 / 10행정구역 면적)	통계청/국토부
청년(19~34세) 순이동률 (10청년 순이동자 / 10청년 현행인구)	통계청
고령화 비율 (106세 이상 / 10총인구)	행정안전부
청소년 비율 (1014세 이하 / 10총인구)	행정안전부
한계종단물	통계청
재정자립도 (10지출수입 / 10지출액 예산 규모)	행정안전부

산업 영역 (6개 지표)

산업 포화율 종사자 수	출처
제조업 전체 종사자 수	통계청
제조업 / 제조업 전체 종사자 수	통계청
제조업 전체 종사자 수	통계청
제조업 / 제조업 전체 종사자 수	통계청
제조업 / 제조업 전체 종사자 수	통계청
제조업 / 제조업 전체 종사자 수	통계청

교육 영역 (7개 지표)

축적 지표 및 산출지	출처
전체 고등교육기관 수 및 대학생 수	대학알리미
전문대학 수 및 학생 수	대학알리미
일반대학 수 및 학생 수	대학알리미
고학력자 비율 (104년제 대학 수로 이상 / 106세 이상)	통계청

복지 및 문화 영역 (2개 지표)

구분 및 축적 지표	출처
[복지] 인구 전 행당 의료기관 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문화] 인구 10만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	문화체육관광부

26

08 지역은 하나가 아니다 | 8개 유형 클러스터링



27

08 지역은 하나가 아니다 | 산업 육성 처방의 한계



산업 유치·육성의 3대 전제조건 :

1 입지 조건
지역적·물리적 접근성

2 최소 인구 규모
지체 수용 가능한 노동력

3 기존 클러스터 연계
인근 생태계 시너지

✓ 산업기반 미흡 지역: 무리한 대표산업 유치보다 지역 특성에 맞는 정주 및 생존 전략 우선

✓ 맞춤형 정책 수립: 8개 유형별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차별화된 청년 고용 정책 설계

28

09 유형을 관통하는 공통 과제 | 시차를 인정하는 설계 + 일자리 질을 겨냥한 수단

제언 01

시차를 인정하는
정주 지원 설계

고용 대책과 인구 목표를 분리하고, 최소 5~7년의 정책 시차를 보장하는 청년
정주 트랙 마련

"3년 만에 인구가 늘지 않았다"는 단기 성과 논리로 정책을 조기 종료하지
않는 원칙 확립

제언 02

일자리 질을 겨냥한
구체적 수단

단순 채용 보조금을 탈피하고 정규직 전환·근로여건 개선 기업 인증 및 직접
소득 보전 병행

지역정책수당 및 지방소득세 감면 등 청년이 직관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처방 지원

29

10 지역 유형별 실행 프로그램 | '산업을 어떻게 만들까' → '무엇을 축으로 삼을까'

1

농·어업·관광형

지역자산 고숙련
아카데미

- ✓ 스마트팜 운영 및 첨단 영농 기술 보급
- ✓ 농산물 가공·유통 전문인력 양성
- ✓ 지역관광 기획·큐레이션 인재 육성

지역 자원 고부가가치화

2

고령화·인프라 취약형

돌봄산업 거점화
사업

- ✓ 초고령사회 진입 대응 (2026년 20.7%)
- ✓ 돌봄·의료 서비스 고숙련 거점 육성
- ✓ 전문인력 양성 및 케어 인프라 확충

고령층 복지 및 일자리 선순환

3

대도시 인근·자세기반 취약형

광역통근 정주
패키지

- ✓ 인접 거점 일자리 연계 인재 양성
- ✓ 주거비·통근비 직접 지원 패키지
- ✓ 대구·경북, 대전·충청 행정통합 연계

광역 경제권 인구 유입 유도

30



감사합니다

발 표 4

수도권·비수도권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와 정책과제

김상호 본부장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교육고용연계연구본부)

수도권·비수도권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와 정책과제

2026년 10월 2일(금)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교육고용연계연구본부 본부장 김상호

본 발표자료는 직업과 자격연구, 2025(vol. 14, no. 1)에 게재된, 논문 “황광훈·김상호·조용운·정효채·조준호(2025), 「수도권·비수도권 학교 졸업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등 자료를 바탕(발행 및 수정 등)으로 작성된 것임. 발표자료는 ChatGPT 6 Astra(OpenAI)를 활용하여 발표자료를 초안을 작성 후, 다수의 참고자료를 활용한 휴먼터치 및 수정작업을 실시함.

발표 목차

1. 문제 제기

지역인재 양성과 정주의 괴리 문제

2. 연구자료 및 연구방법

청년패널 1~14차, 4개 유형, Cox·임금방정식

3. 취업 유형별 특성

학교·취업 지역별·유형별 표본/유형별 인구학적/학력별/직장특성별 특성 분석

4. 노동시장 성과

일자리 지속기간과 임금효과 비교

5. 결론 및 정책과제

지역 노동시장 격차 완화와 정주 기반 구축

6. 참고문헌

주요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1. 문제 제기: 청년은 왜 지역을 떠나는가

- 청년층은 학교 졸업 후 안정적 노동시장 정착 이전에 긴 탐색 기간을 경험함
- 양질의 일자리 규모가 청년 구직수요보다 부족한 구조임
- 비수도권 청년층은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고용 여건에 직면함
- 관참은 일자리의 수도권 편중은 지역 간 노동시장 격차를 확대함
- 임금격차는 청년의 지역이동과 지역소멸 위험을 매개하는 핵심 요인임

핵심 질문: 지역에서 길러진 인재가 지역에 남을 수 있는 노동시장 조건은 무엇인가

66.8%
수도권 대학 취업률

63.9%
비수도권 대학 취업률

교육부(2020) 2020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결과 기준

약6.2만 명
청년 수도권 순유입
(2024기준)

43.2%
수도권 이동 제1사유: 직업

국가데이터처(2025)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청년층(19~34세)과 중장년층(40~64세)을 중심으로

1. 국가데이터처, (2025. 9. 17.),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 청년층(19~34세)과 중장년층(40~64세)을 중심으로 (보도자료), 국가데이터처, https://mods.go.kr/boisr.es?mid=a10301010000&bid=205&act=view&list_no=438645 ▶ 2023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소득 및는 사람 가운데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 69.6%
2. 국가데이터처, 지방시대위원회, (2025. 12. 3.), 청년 인구이동에 따른 소득변화 분석 및 5국3특 국가균형성장 정책과의 연계 활용 (보도자료), 세종: 국가데이터처·지방시대위원회, ▶ 비수도권→수도권 이동 청년 평균소득 2,439만원→2,996만원, +22.8% 증가, 수도권 이동자 중 34.1%가 소득분위 상승

2. 연구자료 및 연구방법

구분	내용
분석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조사 1~14차 자료임
조사기간	2007~2020년 직업력 자료와 전체자료를 연결함
표본	최종학교 졸업 후 노동시장 경험이 있는 3,613명임
분석대상	2~3년제 대학 및 4년제 대학 졸업 청년층임
지역구분	수도권은 서울·인천·경기, 그 외는 비수도권임
분석방법	Cox 비례위험모형, Mincer 임금방정식 활용함

성과변수	측정 내용
일자리 지속기간	현재 일자리 지속기간(개월)임
로그 월평균임금	현 직장 월평균 실질임금의 로그값임
통제변수	성별·학력·연령·고용형태·기업규모·산업·직업 등임
핵심 설명변수	최종학교·취업지역 4개 유형임

분석 초점:

학교지역과 취업지역 조합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 차이 확인함

05

3. 학교-취업지역 4개 유형

유형	최종학교 소재지	현 직장 소재지	해석
유형 1	수도권	수도권	수도권 졸업 후 수도권 취업형
유형 2	수도권	비수도권	수도권 졸업 후 비수도권 취업형
유형 3	비수도권	수도권	비수도권 졸업 후 수도권 취업형
유형 4	비수도권	비수도권	비수도권 졸업 후 비수도권 취업형

유형 4가 기준집단임: 비수도권 학교 졸업 후 비수도권 현 직장에 취업한 집단임

06

3. 유형별 표본 구성

유형	빈도	비율	정책적 의미
유형 1 수도권-수도권	1,341명	37.1%	수도권 내부 이행 규모가 큼
유형 2 수도권-비수도권	139명	3.9%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이동은 제한적임
유형 3 비수도권-수도권	620명	17.2%	비수도권 인재의 수도권 유입 경로임
유형 4 비수도권-비수도권	1,513명	41.9%	비수도권 지역정주 핵심 집단임
전체	3,613명	100.0%	분석대상 전체임

해석: 비수도권→수도권 이동형이 수도권→비수도권 이동형보다 훨씬 크게 나타남

유형 3 관련,

국가데이터처, 지방시대위원회, (2025. 12. 3.), 청년 인구가동에 따른 소득변화 분석 및 5국3특 국가균형성장 정책과의 연계 활용 [보도자료], 세종: 국가데이터처·지방시대위원회 ▶ 권역 간 이동에 따른 평균소득 및 중간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한 소득 있는 사람 가운데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 69.6%, 비수도권→수도권 이동 청년 평균소득 2,439만원→2,995만원, +22.8% 증가

3. 유형별 인구학적 특성

구분	유형1	유형2	유형3	유형4
남성	43.4%	63.3%	47.3%	45.3%
여성	56.6%	36.7%	52.7%	54.7%
25~34세	73.3%	71.9%	76.9%	72.4%
대졸	64.5%	82.0%	85.6%	72.4%
수도권 거주	95.8%	39.6%	69.8%	2.6%
영남권 거주	1.8%	21.6%	13.9%	56.6%

해석: 유형 3의 수도권 거주 비율은 69.8%로, 비수도권 학교 졸업 후 생활권 이동이 나타남

3. 학력별 이동 특성: 대졸 집단에서 수도권 이동이 두드러짐

구분	전문대졸 유형3	대졸 유형3	해석
표본 수	94명	548명	대졸 집단에서 비수도권→수도권 이동 규모가 큼
수도권 거주	56.4%	72.3%	대졸 유형3에서 수도권 생활권 전환이 강함
대상 연령 25~34세	72.4%	78.3%	노동시장 초기 핵심 연령대(청년) 집중임
혼인 미혼	78.7%	75.2%	초기 경력단계 이동 가능성이 큼

정책 함의: 고학력 청년의 지역이동은 지역 인적자본 축적과 직결되는 문제임

1. 한국고용정보원, (2016-2020), 대졸자취업이동경로조사 (SOMS 2016-2020) [통자료], 고용통계조사 DB, <https://survey.keri.or.kr> ▶ 2019-2020년의 취직한 비수도권 대학 졸업자 223,057명을 분석한 결과, 117,747명(52.8%)이 수도권 기업에 취업(105,310명/47.2%)은 비수도권 기업에 취업(4년제 대학 학부와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의 경우를 나타내는 변수로 사용했는데, 두 변수 모두 수도권 유출에 유의한 양(+)의 효과를 보임
2. 황재현, 윤진우, 김혜진, & 최재현, (2023), 지역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BOK 이슈노트 제2023-29호), 한국은행. ▶ 2015-2021년 수도권 인구 증가에서 청년 유입의 기여율이 78.5% 대충권에서는 청년 유출의 기여율 77.2% 대충권에서는 청년 인출자 가운데 대졸자 비율이 63.4%인데, 대충권 청년 전체에서 대졸자 비율은 49.4%로 나타남. 이는 고학력 청년의 지역 유출 비율이 높다는 것과 수도권 인구 증가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줌.

09

4. 분석대상자(3,613명)의 직장 특성

90% 상용직 비율	41% 소기업 비율	40% 대기업 비율	43.33개월 평균 일자리 지속기간
---------------	---------------	---------------	------------------------

항목	평균·비율	해석
주당 평균 근로시간	42.32시간	청년층 현 직장의 평균 근로시간임
노동조합 있음	21%	노동조합 유무는 임금·지속기간과 관련됨
학력 미스매치	20%	부족과 과잉을 합한 비율임
기술 미스매치	18%	부족과 과잉을 합한 비율임
전공일치	85%	전공불일치는 약 15%임

10

4. 노동시장 성과 ① 일자리 지속기간

- 일자리 지속기간은 현재 일자리에 머무른 기간을 의미함
- 분석방법은 Cox 비례위험모형임
- 위험비가 1보다 크면 일자리 이탈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함
- 위험비가 1보다 작으면 일자리 이탈 가능성이 낮음을 의미함
- 기준집단은 유형 4, 즉 비수도권 학교·비수도권 직장임

위험비	해석
1보다 큼	이탈 가능성 증가임
1과 같음	기준집단과 차이 없음
1보다 작음	이탈 가능성 감소임
***, **, *	통계적 유의성 표시임

초점:
지역 유형 자체보다 일자리 질 조건이 정주에 미치는 영향 확인함

11

4. 최종학교-취업지역 유형이 일자리 지속기간에 미치는 영향

변수	위험비	해석
유형 1 수도권-수도권	1.325***	유형 4보다 이탈 가능성 높음
유형 2 수도권-비수도권	1.747**	유형 4보다 이탈 가능성 높음
유형 3 비수도권-수도권	1.213	통계적 유의성 없음
상용직	0.406***	임시·일용직보다 이탈 가능성 낮음
대기업	0.587***	소기업보다 이탈 가능성 낮음
노동조합 있음	0.709**	노동조합 없음보다 이탈 가능성 낮음
로그 월평균소득	0.285***	소득 높을수록 이탈 가능성 낮음

12

4. 노동시장 성과 ② 최종학교-취업지역 유형의 임금효과

유형	임금효과	해석
유형 1 수도권-수도권	+8.0%***	유형 4보다 임금수준 높음
유형 2 수도권-비수도권	+5.6%**	유형 4보다 임금수준 높음
유형 3 비수도권-수도권	+6.2%***	비수도권 학교 졸업자도 수도권 취업 시 임금 프리미엄 발생함
유형 4 비수도권-비수도권	기준집단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수준 확인됨

핵심 해석: 비수도권 학교 졸업 후 비수도권 기업 취업 집단의 임금 열위가 확인됨

13

4. 성별 임금효과와 직장특성 프리미엄

구분	전체	남성	여성
유형 1 수도권-수도권	+8.0%***	+7.8%***	+8.6%***
유형 3 비수도권-수도권	+6.2%***	+3.8%*	+9.0%***
상용직	+24.1%***	+24.6%***	+22.5%***
대기업	+13.7%***	+14.1%***	+13.6%***
노동조합 있음	+9.4%***	+8.4%***	+10.0%***
전공일치	+8.1%***	+9.4%***	+5.5%**

해석: 지역효과와 직장특성 효과가 함께 청년 임금격차를 형성함

14

4. 학력별 임금효과: 4년제 대졸 이상에서 격차 확대

유형	전문대졸	4년제 대졸 이상	해석
유형 1 수도권-수도권	+2.1%	+10.7%***	대졸 이상에서 수도권 프리미엄 큼
유형 2 수도권-비수도권	+1.6%	+7.1%**	대졸 이상에서 유의한 임금효과임
유형 3 비수도권-수도권	-1.9%	+8.4%***	비수도권 대졸자의 수도권 취업 프리미엄임
유형 4 비수도권-비수도권	기준	기준	비교 기준집단임
전공일치	+8.1%***	+7.3%***	전공-직무 연계의 임금효과 존재함

정책 함의: 고학력 지역인재의 유출은 임금격차와 직접 연결될 가능성 큼

5. 분석 결과 종합

분석영역	핵심 결과	정책적 의미
이동 구조	유형 3이 유형 2보다 큰 구조임	비수도권→수도권 이동 압력이 존재함
거주 변화	유형 3의 수도권 거주 비율 69.8%임	취업지역 이동이 생활권 이동으로 이어짐
일자리 지속	상용직·대기업·고소득은 이탈 가능성 낮춤	정주는 일자리 질 문제임
임금효과	유형 1 +8.0%, 유형 3 +6.2%임	수도권 취업 프리미엄이 존재함
학력별 효과	대졸 이상에서 유형 3 +8.4%임	고학력 지역인재 유출 위험이 큼
종합	비수도권 졸업자의 수도권 취업은 임금과 일자리 지속 기간 등에 있어 성과 있음.	비수도권에 괜찮은 일자리를 확대

5. 정책과제

1. 양질의 지역 일자리 확대 전략·특화산업 및 신산업 육성을 통한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

수도권은 기업과 일자리 기회가 집중되어 높은 임금을 제공하는 반면, 비수도권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한정된 고용 기회로 인해 인재 유출이 지속되고 있음. **지역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 산업 활성화를 촉진하는 정책을 강화해야 함.** 예를 들어, 비수도권에 첨단 산업 단지나 스타트업 지원 허브를 설립하여 지역 내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을 고려할 수 있음.

1. 박민우, 황기영, 박성재, 김성훈, 김동성, & 오윤석. (2023). 수도권 일자리사업 현황 및 정책과제 (기초연구 보고서 No. 2023-21). 한국고용정보원. ▶ 지역 청년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1) 지역별 특화 사업 발굴 노력, 2) 지역별 노동시장, 산업의 심층 분석과 사업 참여자 이해 증진, 3) 지원이 필요한 신생장 산업과, 4) 유망 산업의 확산과 5) 지원 이전, 해당 산업이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역할, 6) 정책 중의 지원 여부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전봉경, 이소원, & 이계민. (2025).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방 산업구조 전환 전략 (국토정책Brief 제998호). 국토연구원. ▶ 국토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에서 빠져나가는 인구는 무척위험한 것이 아니라, 청년/고학력/고소득 인력의 선택적 유출 경향성이 두드러지고 있음. 따라서 청년 청년과 함께, 지역 내 인력자원의 유출을 막고, 고부가가치 산업과 인재가 함께 성장하는 지역 노동시장 생태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함.

3. 황명준, 조종훈, 김동성, & 김수진. (2025).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탈 분석 (기초연구사업 2024-29). 한국고용정보원. ▶ 비수도권의 청년 유출은 단순한 일자의 부족뿐 아니라 임금수준, 고용안정성, 경력개발 가능성 등 일차적의 질적 격차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 노동시장 이탈 분석에서도 비수도권 학교 졸업 후 비수도권 기업이 취업한 청년의 평균수준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비수도권 학교 졸업 후 수도권 기업에 취업한 경우 비수도권 취업자보다 평균수준이 5.1%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17

5. 정책과제

2. 지역 강소기업 육성 기술력과 성장성이 높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집중 지원

비수도권 지역의 산업 특성상, 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영세 소규모 사업체의 비중이 높음. 비수도권에 기반을 둔 기업에 세제 혜택과 연구개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에게 경쟁력 있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함.

1. 한요섭, (2022), 청년층의 지역 선택을 고려한 지방소멸 대응방향 (KDI 정책포럼 제299호), 한국개발연구원. ▶ 청년의 비수도권 정착을 위해서는 청년 개인에 대한 교육·양육 지원을 떠나 비수도권 기업에 교육·훈련 지원을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함. KDI의 정책 시뮬레이션에서도 동일한 재원을 투입할 경우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보다 지방기업에 대한 임금보조금 및 세제혜택이 청년의 지방 취업 확률을 높이는 데 더 큰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황광훈·김성호·조종문·정흥재, (2023), 지역별 대응 청년층의 학력·기술·경력 mismatch와 직장안락도가 노동이동 및 임금에 미치는 효과, 26(3), 77-108. ▶ 지역별 청년층의 mismatch를 개선하고 직장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내 강소 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대규모 사업체 유치를 적극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근로 조건이 열악하지 않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야 함.

18

5. 정책과제

3. 지역 임금격차 완화 비수도권 취업 청년 지원 및 기업의 임금지급 능력 제고

지역별 임금 수준을 보완하기 위한 청년 취업 지원금을 도입하거나 확대하여 비수도권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해야 함

1. 한요섭, (2022), 청년층의 지역 선택을 고려한 지방소멸 대응방향 (KDI 정책포럼 제111호), 한국개발연구원. ▶ 청년의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 일자리와 임차 격차뿐 아니라 임금 등 취업조건과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현재 단계보다 취업 단계의 경제적 격차가 청년의 지역 선택에 보다 분명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지방기업 취업에 대한 임금보조금 및 세제혜택을 정책수단으로 검토할 수 있음.

5. 정책과제

4. 대학-기업 연계 강화 지역대학과 기업 간 취업·인턴십·직무연계 확대

수도권과 비수도권 청년의 취업 준비 과정에서의 정보 비대칭성 문제는 비수도권 출신 청년층의 취업 시장에서의 불리한 위치를 초래함. 비수도권 대학과 수도권 기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멘토링 시스템을 확대하여 지역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황광훈·김상호·조용문·정호재·조문호, (2025), 수도권-비수도권 학교 졸업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직업과 자격 연구, 14(1), 1-25. ▶ 비수도권 출신 청년층의 취업 성과는 교육 수준과 네트워크 차원의 부족에 영향을 받음. 수도권 대학은 취업과 관련된 네트워크와 인턴십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하며, 이는 수도권 청년층의 경쟁력을 높이는 반면, 비수도권 대학 출신 청년층은 이에 접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5. 정책과제

5. 정주여건 개선 교통·주거·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 장기정착 기반 강화)

수도권에 집중된 청년 취업 수요를 비수도권으로 분산하기 위해 지역 간 이동성을 강화해야 함.
교통 인프라 확충과 원격근무 활성화를 통해 청년들이 비수도권에서도 수도권과 동일한 수준의 고용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1. 황광훈, & 김상호, (2022), 대전·세종 및 충남지역 청년층의 취업특성 및 일자리 이용 분석, 지역산업과 고용, 2022(가을호), 84-107. ▶ 지역 내 청년의 일자리와 함께 교육/문화/주거/복지 등이 모두 개선되어야 함.
2. 이수영, 이자희, 심혜민, & 이종표, (2022), 청년의 지역이동과 정착, 균형발전 포스터링 & 이슈 Brief, (11), 23. 국토연구원. ▶ 국토연구원이 지방 거주 청년이 있는 청년 1,000명을 조사한 결과, 모든 이종표영에서 일자리가 없었던 10% 이종표영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정착하는 과정에서 주거비용과 대중교통 편의성도 중요한 고려요소로 나타났다. 청년의 이종표영에서는 일자리가 핵심이나, 지역정책 전체에서는 주거비용 대중교통 개선도 함께 적용함
3. 이지혜, (2024), 생애주기 사건과 지역 이동: 대학 진학, 취업, 결혼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333, 17-30. ▶ 지역 대학의 경쟁력, 비수도권 일자리, 청년 신혼부부 주거정책을 생애주기별로 연계할 필요성이 있음.

참고문헌

- 교육부, (2020). 2020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 국가데이터터치, & 지방시대위원회. (2025, 12월 3일). 청년 인구이동에 따른 소득변화 분석 및 5국3독 국가균형성장 정책과의 연계 활용 [보도자료].
- 국가데이터터치. (2025, 9월 17일). 최근 20년간 수도권 인구이동: 청년층(19~34세)과 중장년층(40~64세)을 중심으로 [보도자료].
- 박민주, 장기영, 박성재, 김상호, 김종성, & 오윤석. (2023). 수도권 일자리사업 현황 및 정책과제 (기본연구 보고서 No. 2023-21). 한국고용정보원.
- 이지혜. (2026). 생애주기 사건과 지역 이동: 대학 진학, 취업, 결혼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331, 17-30.
- 전봉경, 이소현, & 이해민. (2025).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방 산업구조 전환 전략 (국토정책Brief 제998호). 국토연구원.
- 정민수, 이다혜, Volker Ziemann. (2026). 지역간 인구이동과 세대간 경제력 대물림 (BOK 이슈노트 제2026-6호). 한국은행.
- 정재현, 동진우, 김혜진, 최재현. (2023). 지역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 (BOK 이슈노트 제2023-29호). 한국은행.
- 허수정, 이차희, 심혜민, & 이종표. (2022). 청년의 지역이동과 정착. 균형발전 모니터링 & 이슈 Brief, (11), 23. 국토연구원.
-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조사 1~14차(2007~2020년) 직업력 자료 및 전체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2016~2020).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 (GOMS 2016~2020) [원자료 Data set]. 고용동향조사 DB. <https://survey.keis.or.kr>
- 한요셉. (2022). 청년층의 지역 선택을 고려한 지방소멸 대응방향 한국개발연구원.
- 황광훈 & 김상호. (2022). 대전·세종 및 충남지역 청년층의 취업특성 및 일자리 이동 분석. 지역산업과 고용, 2022(가을호), 84-107.
- 황광훈, 조용운, 김종성, & 김수진. (2025). 청년층의 노동시장 이행 분석 (기본연구사업 2024-29). 한국고용정보원.
- 황광훈·김상호·조용운·정효채. (2023). 지역별 대졸 청년층의 학력·기술·전공 mismatch와 직장만족도가 노동이동 및 임금에 미치는 효과, 26(3), 77-108.
- 황광훈·김상호·조용운·정효채·조준호. (2025). 수도권·비수도권 학교 졸업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직업과 자격 연구, 14(1), 1-25.

개원 29주년 기념 심포지엄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기반,

'지역 인재'의 성장과 정착

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기획조정본부 홍보팀